

# ECONetWAY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23 / December 5,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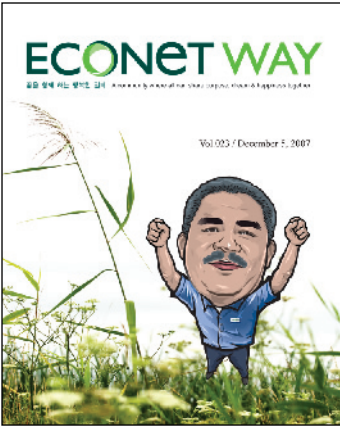


이 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알로콧 미국의 쥔 피날레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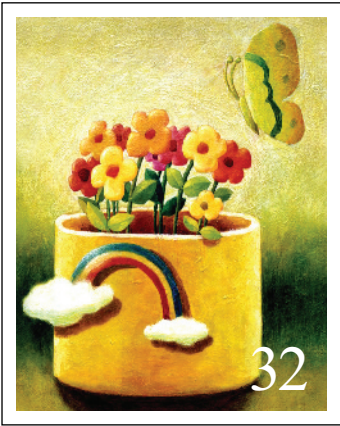
Presenting December's "Exemplary ECONETian": Joe Pinales of AloeCorp USA



c o n t e n t s



**Cover Page**  
사진 김종민 작가 캐리커처 장영석  
유니젠 러시아 농장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사진과 이 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조 피날레스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담았다.  
**Photo** by Jongmin Kim  
**Caricature** by Yeongseok Jang  
The cover features a photograph of indigenous wildflowers growing around Unigen's Russia Farm and a caricature of December's "Exemplary ECONETian," Joe Pinales.



**ECONET Special**

- 02** 2008년을 바라보는 CEO 메시지
- 26**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 나무를 키우는 사람
- 32** 웰니스 칼럼 • 일과 삶의 Stress Management
- 38** 포커스 • 2007년 가을 Global CEO Meeting

**ECONETIAN**

- 40**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 • 해피 바이러스, 조 피날레스
- 44** 고고우리부서 • 알로에 명품의 추억들
- 50** 에코넷으로의 초대 • 환상적인 할로윈 축제
- 54** 우체통 1 • 빨간색에 대하여
- 60** 우체통 2 • 나의고향-코코 포레스트 베이
- 64** 우체통 3 • 홍수 재해를 극복한 도전 정신



**Culture & Life**

- 68** 신제품 소개 • 알로맥프로
- 72** 추천도서 • 다시 읽어본 '워킹 드럼'

**Info**

- 74** ECONET News Network • ECONET 계열사 뉴스
- 90** 에코넷 사진컨테스트
- 94** 퀴즈! 퀴즈!
- 95** 함께 만드는 에코넷웨이



**ECONET Special**

- 02** Messages from CEOs Welcoming the Year 2008
- 29** Review of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 The Man Who Grows Trees
- 35** Wellness Column • Stress management: Balance of work and life
- 39** Focus • Fall 2007 Global CEO Meeting

**ECONETIAN**

- 42** Exemplary ECONETian • Happy Virus, Joe Pinales
- 44** Go! Go! Our Division • The Masters behind the Masterpieces
- 52** Invitation to ECONET • Haunted Halloween Happenings
- 57** A Postbox 1 • Shades of Red
- 62** A Postbox 2 • My Hometown-Coco Forest Bay
- 66** A Postbox 3 • Enterprising Spirit Overcomes Flood Damage

**Culture & Life**

- 70** New Product Introduction • Aloemeg Pro
- 73** Recommended Books • The Walking Drum Revisited

**Info**

- 74** ECONET News Network • ECONET Subsidiary News
- 90** ECONET Photo Contest
- 94** Quiz! Quiz!
- 95**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 CEO's Message

Messages from CEOs Welcoming the Year 2008

## 아름다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농부의 마음으로!

2001년 12월, 러시아 크라스키노.

밤새 내린 함박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인 별판 사이로 몇 명의 사나이들이 눈길을 헤치며 구석구석 살피고 있었습니다. 낯선 인기척에 놀란 산토끼와 노루들이 펄쩍 뛰어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 온통 하얀 눈세상으로 변한 크라스키노 별판과 하얀 눈으로 더욱 푸르른 바다와 호수의 경치를 한껏 멋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쳐가긴 너무 힘들었고, 허허별판을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너무 거세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눈 쌓인 별판의 사나이들의 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별판을 답사하던 사람들이 쓰러진 고목 위에 앉아 열띤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쌓인 눈을 도화지 삼아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대며 여기에는 에코네시아 농장, 저 강 건너에는 인삼을 재배하고, 저쪽 언덕 양지바른 곳, 옛 밭농장에는 천연물 추출공장을... 백설의 러시아 별판에 거대한 천연물 기지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장면은 6년 전 에코넷 크라스키노 농장을 인수하기 위해 현지를 처음으로 답사했던 에코네시아인들의 활동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계 최대의 황금재배단지로 태어난 그 별판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에코넷 크라스키노 농장은 천연물 생산기지인 한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대규모 영농가능지역이라는 지리적 장점 이외에도 약용식물의 유효성분을 극대화한다는 게르마늄 토양층, 바다와 호수가 잘 어우러진 청정지역 등등 천혜의 천연물 재배단지로서의 장점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에코넷을 만나기 전에는 지역의 농업시스템 붕괴로 수 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이곳에 땀과 눈물을 뿌리며 650여만 평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농장을 일구었고, 이제 여기서 재배되는 황금에서 추출한 제품은 전 세계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창 밖에 펼쳐진 에코넷의 또 하나의 역사를 잔잔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눈길을 헤치며 답사를 하던 우리의 열정, 버려진 땅 위에 첫 삽을 뜨며 농장의 재건을 시작한 우리의 용기,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수많은 난관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여 아름다운 농장을 기어코 일구어낸 우리의 집념, 그리고 그 면면에 흐르는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있고 가치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에코네시아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

새해, 2008년은 우리가 미국 텍사스에서 해외영농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20년 동안 우리의 영농은 그 규모와 형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에코넷의 핵심역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에코넷 20년 영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준 것은 사업적 경쟁력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중요하고 엄청난 선물은 바로 '농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연을 경외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자연과 더불어 선을 추구하는 조화와 상생의 마음, 재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도전과 용기의 마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

많은 기업들이 내년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고심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출해 내는 것은 전략과 전술 이전에 '마음' 일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통해 얻은 '농부의 마음'이 우리의 꿈과 행복을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길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줬던 은하수가 되고 현명한 길동무가 될 것 입니다.

농부의 우직함과 너그러움, 그리고 수확의 환희가 우리 에코네시아 가족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총괄사장

이병훈





Bill Lee, Chairman & CEO

*With the Heart of a Farmer Giving Birth to Beautiful Life!*

In December of 2001, in Kraskino, Russia. On a broad field already knee-deep in snow from the previous night's storm, a handful of men were trudging their way through the white landscape apparently in search of something. From time to time, their movements would startle a rabbit or a deer from its hiding place and send it leaping for cover. These sudden, bounding forms added even more poignancy to the picturesque scene, while the pristine snow carpeting the plain intensified the deep blue of the surrounding sea and lake. Nonetheless, the deeply-piled snow took a heavy toll on the men as they walked, and the blizzard sweeping across the empty field was merciless in its arctic ferocity. Against such impediments, the dark

figures continued their survey across the snowy plain. Several hours passed. The men finally left off their search and sat down on an old fallen tree to begin a heated conversation. Using the snow-covered ground as a canvas, they drew pictures with the sticks of wood they found around them. The Echinacea farm here, the ginseng field across the river, and the botanical extraction plant over on the sunny hillside... Upon a vast snowfield in Russia, these men were drawing the blueprint for a massive complex dedicated to the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natural materials.

Thus it was that, six years ago, the ECONETians who first surveyed the site for what would become the ECONET Kraskino Farm fulfilled their mission. And I am now writing this message on that same field, since reborn as the world's largest Golden Root cultivation complex.

The location of the ECONET Kraskino Farm is the closest to Korea, the production base for natural botanicals, among sites that lie outside its borders. Besides this geographic advantage, the farm enjoys several invaluable blessings from nature itself: it is an unpolluted area that combines a layer of soil rich in germanium, an element said to maximize the active ingredients of medicinal herbs, with large bodies of water in the form of sea and lake. Despite such advantages, the site had lain abandoned for decades until ECONET came across it, owing to the dissolution of the region's agricultural system. Over the past six

years, through ceaseless effort and strife, we succeeded in transforming this wasted landscape into over 2,150 ha of beautiful farmland. Now, products derived from the farm's crop of Golden Root are contributing to the health of people the world over.

As I gaze out upon the chapter of ECONET's history extending across the fields outside my window, I feel my heart fill with all the emotions that have brought us this far: our passion as we surveyed the snow-covered plain, our courage as we dug our shovels into the wasted soil and began reconstructing the farm, our perseverance as we braved the many hardships that followed and overcame challenge after challenge to make the farm the beautiful place it is now, and our love throughout it all as we worked to bring the blessings of nature to humankind. I am deeply gratified to be working side by side with ECONETians dedicated to such wonderful and meaningful endeavors.

The coming 2008 will mark the twentieth year since I first embarked on overseas farming in Texas, USA. During those two decades, our agricultural enterprise has grown exponentially in both form and scale; it has come to be one of ECONET's core competencies, recognized by the world. On retrospect, our 20 years of farming has given us not only competitiveness in the business world, but another tremendous gift of far greater value: the heart of a farmer. A humble heart capable of feeling awe and respect for nature, a harmonious and nurturing heart that works with and in nature to achieve good, a spirited and courageous heart

with the fortitude to overcome disaster, and a loving heart that embraces nature and humank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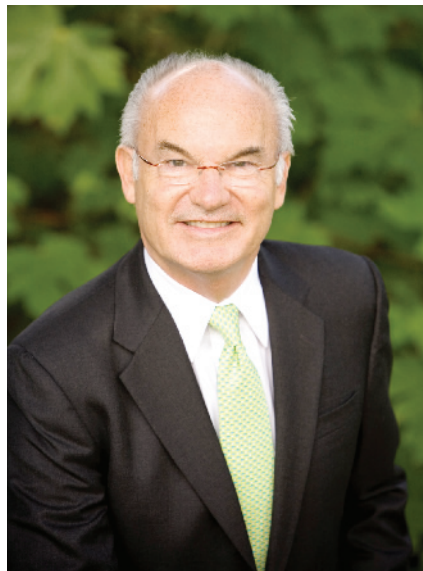
Numerous companies are reportedly scratching their heads over their business plans for 2008 owing to the uncertainties lying in wait. But what truly gives birth to something new isn't tactics or strategies; it is, above all, "heart." The heart of a farmer that our agricultural work has given us will be a sturdy bridge for us across the widest waters, and a wise companion for us on the toughest journeys.

My beloved ECONETians, I hope that your lives will be filled with the honest strength and noble generosity of the farmer, and the unbounded joy of the well-won harvest.



The picture of visiting the farm in Russia with our workers in November 2007





스튜어트 오킬트리, 이사회 부회장 겸 CEO, 에코넷 미국 홀딩스  
Stuart Ochiltree, Vice Chairman & CEO,  
ECONET USA Holdings

### 에코넷 가족 여러분

2007년은 많은 성과와 어려움이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높은 판매 실적을 달성했고 또한 모두가 어려움도 함께 겪음으로써 에코넷의 강점과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생산, 기술, 시장 확대에 있어 개별 기업별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니젠은 천연물 연구, 개발 선도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그 잠재력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알로콧은 멕시코의 파누코에 새로운 농장 부지를 추가함으로써 천연물 생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유니베라 미국은 소비자에게 더 현대적이고 흥미로운 제품으로 다가가기 위한 리브랜딩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에코넷은 회사가 성장해감에 따라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레이닝 센터를 증축하는 등 사무실을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에코넷 가족 모두의 지원과 결의가 요구되었던 난제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한해는 에코넷의 비즈니스 모델의 힘 뿐 아니라 에코넷 가족 모두의 힘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넷 미국을 포함해 에코넷 한국과 전세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에코넷 가족 여러분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에코넷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였으며 여러분이 보여준 능력과 힘은 2008년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에코넷의 밝은 미래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기간이 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에코넷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다가오는 새 해는 보다 밝고 발전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Dear Fellow ECONETIANS,

2007 has been a year of extraordinary success and considerable challenge. Together we grew to new levels of sales success, and together we faced challenges which exemplify the strength and purpose of the ECONET.

The individual companies made great advances in product, technology and market expansion. Unigen continues to grow as the leader in natural products R&D and expanded its potential in both the U.S. and Europe.

Aloecorp significantly expanded its capability by adding substantial new acreage for farming in Panuco, Mexico.

Univera USA successfully completed a major re-branding initiative to bring a more contemporary and exciting face to the consumer.

In ECONET we also expanded our office facilities to accommodate growth; including a new training center which can seat several hundred attendees.

At the same time, there were challenges which demanded the full response of the entire ECONET family which has responded with support and great heart. The ECONET in 2007 proved not only the strength of the business model, but the strength of its character.

I offer my personal and most sincere appreciation for the hard work, dedication and commitment of the ECONET team not only in the USA; but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ogether in 2007 you demonstrated what the ECONET truly is; and that your ability and strength provides the strong foundation for a bright future in 2008 and beyond.

I wish you a happy healthy and blessed holiday season, and look forward to next year with great optimism and confidence as we continue to fulfill our opportunity and mission.





김동식 사장, 유니베라 한국

저에게 2007년은 ECONET 가족의 일원으로서 유니젠에서 유니베라로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도전의식, 위기감과 긴장감,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중장기 전략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한 대비를 준비한 해이기도 합니다.

2008년은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고 Phase II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Phase III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3P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열정(Passion)을 가져라.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라는 사명과 문화를 전하는 행복 전도사가 됩시다.

둘째, 성과(Performance)를 내라.  
열정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였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을 다시 해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또 다시 수행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됩시다.

셋째, 즐거움(Pleasure)을 누려라.  
열정을 가지고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마음껏 즐기라는 의미입니다. 일을 할 때는 Professional이 되어 최선의 성과를 내고 그 보상으로 마음껏 즐기시다.

2008년 유니베라는 일을 추진하는 3P를 기반으로 당면한 도전상황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최고의 천연물 기업이 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과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만족입니다.  
우수한 제품 품질은 고객만족의 기본입니다. CCMS(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를 통하여 고객의 관점에서 품질보증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품

질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프로세스를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고객만족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조직의 생산성(Productivity)입니다.  
책임감(Accountability)을 가진 슬림하고 빠른 조직을 만들어 부서개념에서 기능개념으로, 나아가서는 과업/프로젝트 개념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제품 개발 시스템의 강화와 제품 Positioning의 재정립입니다.  
ECONET의 강점을 살려 CTO, Unigen, NatureTech과의 신제품 개발 ECONET팀을 만들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강화시키고, 목표시장에 맞고 유니베라만의 강점을 갖는 제품Positioning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번트 리더십과 역량강화입니다.  
ECONET의 기업문화인 서번트 리더십이 모든 ECONETian들에게 잘 스며들도록 내가 먼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각자 자기의 꿈들을 가지시

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꿈이 회사의 꿈과 같은 방향이라면 더더욱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당면한 어려움과 도전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능히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ECONET에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ECONETian이 도전, 창의, 인화(人和)로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가꾸어가는 밝은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on Kim, President & CEO, Univera Korea

The year 2007, which marked my transition from Unigen to Univera, signified a step towards the customer as a frontline servant leader of the ECONET. It was also a year in which we redoubled our provisions for the company's new growth engines and mid/long-term strategies with a renewed sense of challenge, urgency, and alertness. The coming year will be even more important for us all: in 2008, we will overcome our current challenges, successfully conclude Phase II of the company's development, and embark on our preparations for Phase III.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emphasize the work ethic I originally noted in my inaugural address: the importance of observing the "3 P's" in all our endeavors.

First, work with Passion.  
Let us be passionate in our commitment to fulfilling the mission of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humankind" and becoming the purveyors of health and happiness.

Second, achieve real results through Performance.  
Even if we carry out our tasks with passion, without real results we must re-do them or have others do it over in our stead. Let us achieve real results in our work by having a clear vision of our objectives.

Third, take Pleasure in your work.  
When we have worked with passion and achieved real results, we must be able to take pleasure in our success. Let us be professionals in our work, doing our best to achieve the best results, then enjoy the rewards to the fullest.

On the basis of the 3 P's, Univera will overcome its present challenges and give renewed impetus to our growth engines in 2008,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provider of natural products. In order to fulfill this goal, we will concentrate on the following four areas throughout the year.

1. Customer satisfaction  
Providing high-quality products is the first step in ensuring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the CCMS (Consumer Complaint Management System), we will establish a quality assurance protocol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and institute a thorough quality testing process both pre- and post-production.

2. Productivity on the level of the organization  
To boost the company's productivity, we will create a slim and streamlined organization with full accountability by shifting our orientation from departments to functions, and even to individual tasks and projects.

3. Enhancement of the new product development system and renovation of product positioning  
Maximizing the advantage provided by ECONET's structure, we will create an ECONET-wide new product development team in conjunction with CTO, Unigen, and NatureTech. We will thus strengthen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and ensure that our product positioning and product portfolio are ideally suited to our target market while representing Univera's unique strengths.

4. Strengthening servant leadership  
To make ECONET's corporate culture of servant leadership an intimate part of all ECONETians, we will build a workplace in which each person takes the initiative in both thought and action in serving others.

He who has a dream is happy. I hope that each and every one of you will nurture your own dream. Further, I propose that our happiness will be even greater if our individual dreams and that of our company carry us in the same direction. It is my firm belief that we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we now face if we only dare to pursue our dreams.

At ECONET, there are dreams and visions.

I wish all ECONETians a bright New Year in which we continue to build a happy workplace of shared dreams through enterprise, creativity, and harmony.

Thank you.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Don Kim".



리건 마일즈 사장, 유니베라 미국  
Regan Miles, President & CEO, Univera USA

사랑하는 에코네시안 여러분,

유니베라 미국의 새 CEO로서 팬을 들었습니다. 새로 부임한지 셋째 주를 맞이하는 지금,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7년은 유니베라에게 명암이 엇갈리는 한 해였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및 제품 지원체제 등의 최신화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은 지난 8월 플로리다 주 올란도에서 개최된 전국 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상품 출시와 IT시스템 체계 구축에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어려운 타

개해 나가기 위해 분투하며 2007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에코넷 수직 계열화 모델의 큰 장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코넷의 방대한 자원을 통해 우리는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보다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지원과 격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2008년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회사의 핵심 체계를 보다 안정화 시키고 최근의 성장 패턴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근본 방안들의 개발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08년을 낙천적인 자세와 자신감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유니베라의 뛰어난 팀들과 현장의 associates의 협력, 에코넷 기업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는 강한 회사로 거듭 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한다는 사명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연말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리건 마일즈 드림

Dear Fellow ECONETians,

I am writing this letter as the newly appointed CEO of Univera USA. I am officially in my third week in this new role and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everyone for the warm welcome and support you have given me in this new role.

2007 was a year of contrast for Univera. Great efforts were put forth to update the brand image, products and support systems. All of these efforts were well received at the National Convention which took place in Orlando, Florida in August. The company was poised for strong growth. Unfortunately, we experienced unplanned challenges involving the newly launched product and the computer systems. The result has been a challenging finish to 2007 as we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situation.

During these challenges, we have been able to experience the great benefit of the ECONET vertical integration model. Through the vast resources of the ECONET, we have been able to recover faster and have more confidence than we could have individually. We

are truly grateful for all the assistance and support.

Looking forward to 2008, our goal will be to further stabilize the core systems of the company and then accelerate the growth patterns of recent history. The programs and key fundamentals to accomplish this are currently under development.

I approach 2008 with great optimism and confidence in the future. With the great team of people at Univera, our associates in the field and the support of the ECONET we will once again be a strong and growing company dedicated to bringing the best of nature to mankind.

Thank you again for all your support and I wish you all the best this holiday season.

Sincerely,

Regan Miles





정찬수 사장, 네이처텍  
Chansoo Chung, President, Naturetech

2007년은 ECONET 뿐 아니라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모든 변화가 그러하듯 새로운 열정의 반대편에서는 두려움도 함께 동반합니다. 다만 빠르게 한 가족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 네이처텍 전 가족의 따뜻한 마음과 열린 문화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2008년은 ECONET 전체나 네이처텍에 있어 Phase II를 마무리하고 Phase III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도 저는 일본의 “사토로 (페이퍼로드사)”가 저술한 “Back To The Basic”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진정한 목적인 이윤 창출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 한 기업을 이끄는 본인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 기본의 화두는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처텍의 고객은 누구인가? 네이처텍은 어떤 기업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품질향상입니다. 고객을 위한 원가절감입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네이처텍의 성장이 있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리는 용기를 갖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의 이해와 문화를 통하여 강한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평, 수직의 신뢰를 통해 무궁무진한 에코네시안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미있고 빨리 출근하고 싶은 회사,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일하는 회사,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네이처텍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객에게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2008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은 두려움도 주지만 비전에 대한 흥분을 함께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취감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키워줍니다.

에코네시안 여러분! 도전을 즐기시다.  
ECONET 안에서의 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ECONET 가족 여러분의 발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With love, 정찬수

2007 was a year of great change not just for ECONET but also for me personally. And as is true of every change, the renewed passion it ignited also brought fear and apprehension. I can only thank everyone at NatureTech for facilitating my introduction into the family through their warmth, caring, and openness.

The new year about to unfold will be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both ECONET and NatureTech: in 2008, we will wrap up Phase II of our development and draft the blueprint for Phase III. For this reason, I want to once again turn your attention to the book Back to the Basics by Sato Ryo (published by Paper Road)

Even though a company's fundamental objective is to generate profit, this goal begets better products and services, creates countless jobs, and impacts numerous individual lives along the way. Whenever I consider this fact, I am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my position as the CEO of just such a company.

“Be faithful to the basics,” “Go back to the basics.” I believe that ‘the basics’ in these dictums referred to is the customer. A company provides customers with products and services. I will always ponder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Who are NatureTech's customers?” and “What kind of company is NatureTech?” We work on quality enhancement for our customers. We reduce costs for our customers. If we put our customers first and place ourselves in their shoes, NatureTech will be able to achieve true growth.

I will cultivate the courage to discard much for the sake of purpose and concentration. I will work to create an open culture founded on trust. I will strengthen teamwork through an understanding of individuals and cultures. By building trust o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xes, I will draw out the infinite potential of ECONETians and realize our full capacity. And in so doing, I will make NatureTech a workplace you can't wait to get to every morning, where everyone loves one another and works with joy, and where happiness grows through the sharing of dreams. All of these things will form the foundation for providing high-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to our customers.

New changes and challenges await us all in the year 2008. The prospect of challenge stimulates not only fear, but also excitement for a new vision. Moreover, it rewards us with the gift of accomplishment, and strengthens our competitiveness.

My fellow ECONETians! Let us enjoy the challenges that come our way! Let us nurture the dream of an ‘I’ within the ‘we’ of ECONET.

I wish everyone at ECONET plenteous growth and happiness in the New Year.

With love,  
Chansoo Chung

정찬수



피터 해퍼만 사장, 알로콥 미국 & 힐탑가든  
Peter Hafermann, President & CEO,  
Aloecorp USA and Hilltop Gardens

은 허리케인 딘과 그 이후 이어진 폭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천연물은 파괴되었고, 농장은 2미터 깊이의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2007년 말까지 파누코 리버 농장에 다시 재배 작업을 완료하고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까지 첫 수확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의 제품과 시장 개척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제품 상용화팀, 기술팀, 운영팀 등의 노력에 힘입어 더욱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에도 제품 및 시장 개발과 상용화에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집중시키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알로콥은 멕시코와 라이포드팀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사무실을 워싱턴 레이시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이전은 힐탑 가든과 알로콥의 개발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제 삼자 계약 시설인 텍사스 네이처텍 창업 기안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8년의 알로콥 사업의 주안점은 탁월한 운영효율성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알로콥은 핵심사업과 새로운 사업에서의 매출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알로콥과 힐탑가든을 위한 더욱 견실한 관리팀을 구축할 것이며, 힐탑가든의 마스터플랜과 네이처텍 생산시설을 위한 계획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들은 더욱 많은 기회를 적기에 상업화하는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넷 가족 특히 알로콥과 힐탑 가든 가족 여러분께 2007년 한 해 노고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명절과 함께 2008년 한 해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알로콥은 올 한 해 여러 부문 그 중에서 특히 해외 시장과 미국 서부 시장에서 큰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시장 채널을 통해 새로운 고객 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 우리 알로콥은 보다 자급자족적인 공급업체로 거듭나기 위한 매우 공격적인 농장 운영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멕시코의 파누코 리버 농장에 200헥타르에 달하는 농지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이곳에 천연물 재배를 시작했지만, 이러한 노력

With the close of 2007 fast approaching, we look at some very positive sales growth in a number of regions for Aloecorp,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and Western USA markets. The growth in these markets is being fueled by new customers for the Company across a broad range of market channels, with network marketing leading the way.

As we reflect on the year, we had in our plans an aggressive farm plan to allow Aloecorp to become self sufficient in leaf supply. We indeed moved forward with this initiative as we acquired 200 hectares of new land at our Panuco River Farm in Mexico. Although we began planting the farm land in July of 2007, these early efforts were severely impaired with the arrival of Hurricane Dean and his aftermath of heavy rains. Our early plantings were destroyed, and our farm was left under 2 meters of water. At the writing of this letter, we expect to have replanted the Panuco River Farm by 2007 year-end, and are looking to derive our first leaf harvest toward the end of 2008, or early 2009.

Our product and market development initiatives progressed in 2007 with the diligent work of the commercial, technical and operations teams. We expect these efforts to continue into 2008, with greater focus and more resources dedicated to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products and markets.

In 2007, Aloecorp moved its Head Office location from Lacey, WA to Austin, TX. This was driven by the need

for Aloecorp management to be closer to both its Mexico and Lyford-based teams. The move was also significant in light of the proposed start-up of a Naturetech third party contract facility in Texas, as well as new development projects at both Hilltop Gardens and Aloecorp.

Our focus for 2008 will be operational excellence at Aloecorp, driving top-line sales for the core business a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creating a more sound management team at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development of a master plan for Hilltop Gardens, planning a Naturetech manufacturing facility, and developing a stronger pipeline of opportunities with a goal to timely commercialize these prospects. As always, servant leadership remains our core focus as the means to achieve and support the goals of the Company.

In closing,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 ECONET employees, and in particular the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employees, for their commitment and support in 2007. Finally,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to all of you warm holiday wishes and the very best of good fortunes in 2008.

Yours truly,





리건 마일즈 사장, 유니젠 미국  
(신임 유니베라 CEO)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기 합성 및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부서가 두 개 늘어났으며 특허 전략을 통해 우리의 원천기술 불법 도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니젠 미국의 성장과 전망에 있어 새로운 기술과 시각을 가져다 줄 새로운 가족도 영입을 했습니다. 유니젠 미국은 얼마 전 성공리에 마무리된 첫 번째 전략 및 계획 회의를 통해 2008년을 위한 확고한 기반과 하나된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판매 부문에 있어 2008년에는 유니젠을 유럽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유럽 진출을 이루어 내는 데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2008년에는 많은 주요 라이선스가 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거대한 신제품 시장을 개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 부문에서도 유니젠 미국의 첫 번째 라이선스 체결이 기다리고 있으며 포춘 500대 기업과 연구협력 계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판매 다각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에코넷의 임상실험 프로그램은 현재 본격 가동 중이며 그 결과 2008년에는 두 개의 새로운 혼합물인 Maizenol 과 새

로운 스킨 화이트너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임상실험과 기존 제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로 판매 증가를 꾀할 것입니다.

R&D에 있어서는 현재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진통제, 제2형 당뇨 및 체중 관리와 관련된 신제품에 있어 상당한 발전과 더불어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NMR(분광학 기술)이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기술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유기 합성팀 또한 피부 미백 제품에서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유니젠 미국과 유니젠 한국은 파이토로직스 데이터베이스 및 공동 약초 도서관 구축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유니젠의 QA/QC팀은 계속해서 천연물 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제 1 기업입니다. 2008년에는 또한 실험실에서 미생물 테스트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테스트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트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파트너사에 더 큰 가치를 가져다줌으로써 파트너사와의 제품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재무 회계팀은 오라클에 더욱 초점을 맞춰 현재 계획 중인 IPO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해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노고에 대해 유니젠 미국과 에코넷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에코넷 가족 여러분

즐거운 명절을 맞아 유니젠 미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또 다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신 유니젠 미국 여러분 모두에게 유니젠과 에코넷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은 판매 및 영업 이익에 있어 모두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유니젠 미국에게 또 다시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는 신기술과 더불어 NMR(분광학 기술) 등을 추가함으로써 유니젠의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지 박사의



Regan Miles, President & CEO, Unigen USA  
(New President & CEO of Univera USA)

***Dear Fellow Econetians,***

Greetings and Happy Holidays from Unigen USA. As another year comes to a close,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everyone at Unigen USA for all their hard work and successful efforts on behalf of Unigen and the ECONET.

2007 was another record setting year for Unigen USA. We have set new records in sales and operating profits. We have added new technology and research capability with the addition of a NMR. (Qi's dream has become a reality.) We have seen the addition of two new

departments in Organic Synthesis and Marketing. We have validated our patent strategy through successfully defending violations. In addition, we have added many great additional team members that bring new skills and perspective to our future growth and prospects.

We have just completed our first ever strategy/planning retreat. It was a great success and sets a solid foundation and unified vision for our focus for 2008. On the sales front, 2008 will see the expansion of Unigen into Europe. We have had many challenges in making this a reality, but the foundation is now set and we should see several key licenses signed in 2008. In addition, we should see the addition of another major mass market partner in the US for a new product. We also expect to sign our first licenses in both the cosmetic and functional foods channels. We will also see major research partnerships signed with fortune 500 companies. Our number one focus in sales will continue to be diversity, diversity, diversity.

Our clinical trial program is operating at full speed and as a result we have two new compounds to sell in 2008.

Maizenol and our novel skin whitener. Going forward, we will be doing an increased number of clinical trials on new products and also do further research on select existing products to enable them to see increased sales.

On the R&D side, we have many new and exciting product programs in development. 2008 should see significant progress and successful launch of new products in the areas of pain, type 2 diabetes and weight management. We will also begin to see the benefit of our new NMR and add an additional technology yet to be identified. The organic synthesis group will see the results of their efforts evident in the production of our skin whitener. Unigen USA and Unigen Korea will also b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further develop the Phytologix database and continue our combined plant library growth.

Our QA/QC group will continue to provide a leadership role in the Industry. Our group is second to none. In 2008 we will add microbiology testing skills in the labs to allow full service testing. We will also further develop our testing capabilities to add greater value to our partners and solidify our product support.

Our Accounting group will be focused on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Oracle and all of the necessary detail work required in our planned IPO.

Thank you all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hard work on behalf of Unigen USA and the ECONET.





구원모 사장, 유니젠 러시아  
Wonmo Ku, CEO, Unigen Russia

### *ECONET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이 어느새 지나고 2008년을 맞이하게 되는군요.  
그간 ECONET 가족들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러시아 농  
장이 2007년 들어 농장의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100ha(30만평)의 황금이 2008년 봄 수확을 기다리고 있고,  
200ha(60만평)의 황금이 신규 파종되었고 2008년 봄  
200ha 황금파종을 위한 밭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명실상

부 세계 최고의 황금농장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우리  
ECONET 가족의 도전과 창조 정신이 러시아에도 전파되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제 2008년부터는 세계 최고 품질의 황금을 가꾸어 내기  
위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고 이미 2007년 말부터 우리는 많  
은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유니젠 러시아 직원들은 2007년의 성과와 경험을 통  
해 세계최고 품질의 황금은 오직 유니젠 러시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고품질의 황  
금추출분말을 직접 가공 생산하여 에코넷 가족에게 공급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꿈이 아니라  
는 것을 2008년에 부분적으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며 2009년에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며  
2008년 신년사를 올립니다.

ECONET 가족 여러분!

건강을 바탕으로 가족에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reetings, my fellow ECONETians!*

Another year has passed us by, and we're now ready to  
greet the year 2008. Thanks to your love and support,  
the Russia Farm established itself as a fully-formed  
farmstead in 2007.

Currently, 100 hectares of Scutellaria baicalensis await  
harvesting in spring 2008. Another 200 hectares have  
been newly planted, while enough space to  
accommodate 200 more hectares of Scutellaria  
baicalensis has been prepared for next spring, making  
our farm the largest Scutellaria baicalensis cultivation  
facility in the entire world. The past year clearly  
demonstrated the fact that the ECONET family's spirit  
of challenge and creativity is flourishing here in Russia.

Our mission in 2008 will be to cultivate the highest-  
quality crop of Scutellaria baicalensis the world has  
ever seen. We have already been laying the  
groundwork for this mission since late 2007.

Based on what we have achieved in 2007, all of us here  
at the Russia Farm are confident that we have what it  
takes to produce the world's finest herbal Scutellaria  
baicalensis. Furthermore, we harbor the ambitious  
dream of producing and processing the best Scutellaria  
baicalensis extract powder right here at the farm, for  
provision to the ECONET family. In 2008, we will  
show you that this dream has the makings of a proud  
reality, which will come to fruition in 2009.

In the New Year, may you and your family bask in the  
true happiness that comes from the health of both body  
and mind.

Thank you.





한상준 사장, 알로corp 중국 & 남양 중국  
Sangjoon Han, CEO  
Aloecorp China & Namyang China

### 2008, 또 새로운 시작

농장 부지 조사를 하다가 이 성기 고문과 헤어져 길을 잃고 서로 숲 속을 5시간여 동안 찾아 헤맸던 일. 해구의 홍수로 집에 3일간 갇혀 있었던 일. 사무실 빌딩의 화재로 근무 중 황급히 대피 하던 일. 30년만의 태풍으로 전 농장이 물에 잠겼던 일. 숙소 건축 업체 인부들이 해구 사무실을 3일간 점거 하던 일. 퇴직 직원으로부터 노동법 관련 고소로 재판에 출정 하던 일.

지난 2000년 6월 해남도에서 근무 시작 이후 7년간의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매 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마다 항상 마음속으로 외우고 또 외웠던 중국 성어가 생각이 난다. 車到山前必有路 辦法總比問題多 (차가 산 앞에 도착해도 반드시 길은 있으며, 언제나 문제 보다는 해결 방

법이 더 많은 것이다.)

나에게 2007년은 여느 때와 달리 그 동안 준비하고 기다려 왔던 7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 하는 한 해로서 그리고 2008년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라는 의미를 갖는다. 올해는 공장이 완성이 되어 내년부터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알로에 원료를 생산 하게 된다. 감개 무량하다. 이러한 공장 건립은 지난 7년간 있었던 어려운 일의 극복과 우리 중국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한국과 미국 ECONET의 도움과 관심으로 가능했던 것 같다. 우리 중국 현지 법인이 오늘까지 성장하고 발전함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8년에 우리는 알로에 베라 젤 파우더를 생산하여 우리의 영업부 직원이 직접 한국,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된다. 좋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아시아 알로에 시장에 진출을 하려 한다. 중국과 아시아 시장 내에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 업체가 이미 진출 해있으며 이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통해 반드시 시장 내에서 리더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바로 2008년은 그 동안 우리의 노력에 대한 첫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마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우리 공장을 방문하면, 내가 직접 공장 설명을 하고 좋은 글귀를 하나 써 달라고 해야겠는데 뭐라고 써달라고 할까?

2007년 11월의 어느 날 해남도에서

### 2008, Another New Beginning

Getting separated from Adviser ChengJi Li while surveying a farm site and wandering the forest for five hours in search of him. Being trapped in a house for three days during the Haikou flood. Having to evacuate the building because a fire had broken out at the office. The whole farm getting submerged after being hit by the first typhoon in 30 years. The dormitory construction crew taking over the Haikou office for three days. Going to court because a terminated worker had filed a labor law-related lawsuit.

These are just some of the myriad incidents that have occurred since June 2000, when I first began working in Hainan. Every time we were faced with trouble, there was a particular Chinese saying that I repeated to myself over and over. Translated, it goes something like this: "Even if your car comes up against a mountain, there is always a way, as there are always more solutions than there are problems."

For me, 2007 was a special year in which the past seven years of anticipation and preparation came to a successful close; the coming 2008 is equally significant as a year that will mark a new beginning in my life. This past year, construction on our production plant was finally completed; next year, we will begin producing aloe raw materials in China for the very first time. It is a transition that is as thrilling as it is overwhelming. I believe that the completion of our

factory was made possible by our perseverance through seven years of hardship, the dedicated effort of our China team, and the continued care and support of ECONET Korea and USA. I feel nothing but the deepest gratitude for everyone who contributed to our growth and development over the years.

One of our new tasks in 2008 will be the manufacturing of aloe vera gel powder. Our sales staff will personally market this product in Korea, China, and Southeast Asia. It is our intention to make successful inroads into the Asian market on the strength of superior quality and competitive prices. Rival companies from China and the US already operate within the Chinese and Asian markets; we anticipate fierce competition with these companies. Nonetheless, we will prevail over them and take the lead through our outstanding technological and competitive prowess. The coming 2008 will thus become the year in which our past endeavors come to fruition for the first time.

What new adventures await us in 2008? Well, perhaps...

If President Hu Jintao visits our plant, I'll personally guide him on a tour of the facilities and ask him for a work of calligraphy for display. What should I ask him to write?

##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승승장구가 계속될수록 연호는 도리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연호는 스스로 삼가고 절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나무를 키우는 사람

여름 소나기가 퍼붓고 지나간 포천농장은 젊고 싱싱했다. 산등성이마다 한껏 가지를 뻗은 나무들은 저마다 푸르름을 자랑하고, 계곡을 타고 불어난 물줄기는 더위에 지친 땅을 식혀주었다. 무엇보다도 포천농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은 싱싱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꼬마 손님들로 더욱 활기차고 푸르러지는 포천농장..

생활건강 설계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캠프, ‘남양알로에 꿈나무 교실’이 열리기 때문이다. 생활고에 쫓기느라 아이들을 데리고 근사한 바캉스 한 번 다녀보지 못한 건강설계사들에게 회사에서 무료로 여는 어린이 캠프는 더없이 반가운 프로그램이었다. 또래들과 어울리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 자연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무엇보다도 캠프 기간에 아이들이 부모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게 연호는 기뻐했다.

물 침방이는 소리. 시원한 매미 소리.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한데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며 연호는 저절로 미소가 피어올랐다.

1989년과 1990년을 거치면서 회사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미국 현지법인 알로콧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냈다. 1989년 초 1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첫 냉해에 이어, 그 해 연말 다시 혹독한 냉해가 들이닥쳤다. 그러나 첫 번째 낭패의 경험이 이번에는 큰 재산이 되었다.

냉해 예보를 접하자마자, 병훈은 남들 다 쉬는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아랑곳없이 인근 농장을 돌며 알로에를 모두 사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냉해가 닥치자, 연휴 동안 아무 준비도 못한 다른 농장들은 알로에 원료가 바닥나 버렸고, 원료 품귀로 인해 미국 유수의 대규모 알로에 기업들이 제풀에 나가떨어졌다.

1990년 1월, 미국 굴지의 알로에 기업인 베라프로덕트를 인수하게 된 것도 그 덕분이었다. 처음 연호와 병훈이 알로에 농축원료를 수입하기 위해 베라프로덕트를 방문한 지 만 3년만에 이룩한 대역전극이었다. 이제 알로콧은 멕시코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알로에 농장을 가진 기업이자, 농축원료를 생산하는 베라프로덕트의 최고급 시설까지 갖춘 기업으로서, 미국 알로에 시장의 막강한 실력자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남양알로에의 매출도 비약적으로 성장해 총 판매고는 2백억 원대에 달했고, 그 전년도 9월에는 충북 진천에 대규모 생산공장도 새로 준공했다.

승승장구가 계속될수록 연호는 도리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연호는 스스로 삼가고 절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포천농장은 그가 마음을 다스리기에 적절한 장소였다. 삼이며 팽이며 온갖 연장들을 쌓아둔 창고에서 연호는 전지가위를 하나 꺼내 들고 나왔다. 철이 바뀔 때마다 나무를 다듬고 가꾸는 재미는 세월이 가도 질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하세요?”

늘어진 가지를 치는 연호에게 한 소년이 불쑥 말을 걸어왔다.

“나무 잘 키울라꼬 다듬어주는 거다”

“그거 나 좀 해보면 안돼요?”

호기심어린 눈을 반짝이며 묻는 소년에게 연호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전지가위를 건넸다. 소년은 의기양양하게 가위를 들고 나무로 다가섰다. 그러나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막막한 모양이었다. 나무를 이리저리 살펴 보더니 제일 가까이 있는 가지에 가위를 갖다 댔다.

“아이다, 그거 짜르모 안된다. 여서 봐라. 저 나무가 곧게 위로 잘 자라야 하긔제? 그라모 잘 자라는 가지를 짜를 기가. 옆으로 뻗친 거를 짜를 끼가?”

“뻗친 걸 잘라야쥬.”



“맞다. 그래야 양분이 딴 데로 가지 않고 나무가 똑바로 잘 서게 되겠제? 나무도 지를 이뻐해주고 잘 키워줄라꼬 가지를 치는 긴지, 지 문살게 굴라꼬 아무 가지나 막 짜르는 지 다 알아본다. 그냥 툅툅 짜르모 나무가 싫어한다”  
“치, 나무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무가 와 생각이 없노. 나무도, 풀도 다 표정이 있는데... 니, 안봐나?”

“어떡하믄 보이는데요?”

“나무를 사랑하믄 보인다. 나무가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열매도 내주고. 그 뿌  
이가. 나무가 좋은 땅도 만들어준다 아이가. 그라이 을때나 이쁘고 사랑스럽노”

“나무가 좋은 땅을 만들어요?”

“그래. 퍽퍽한 땅에 나무를 심으마 나무가 땅에 양분도 넣어주고 물도 가 되주고, 그  
래 불모지에도 나무를 자꾸 심으마 좋은 땅으로 변한다 아이가. ‘

“....”

소년이 잠잠히 나무를 바라봤다. 판에는 깊은 생각이라도 하는 듯 의젓한 품이 연호를 미소짓게 했다.

“그럼, 할아버진 이 세상에서 나무가 쥔 좋아요?”

“하하.. 나무 좋지. 글치만 어째 나무만 좋노. 세상에 있는 게 다 좋지. 그 중에 쥔로 좋은 건 역시 사람이고...”

“승윤아! 뭐하냐? 얼렁 와! 6조 모이래.”

고만고만한 또래 서너 명이 저만치서 소년을 불렀다.

“응. 알았어. 갈께! 할아버지, 나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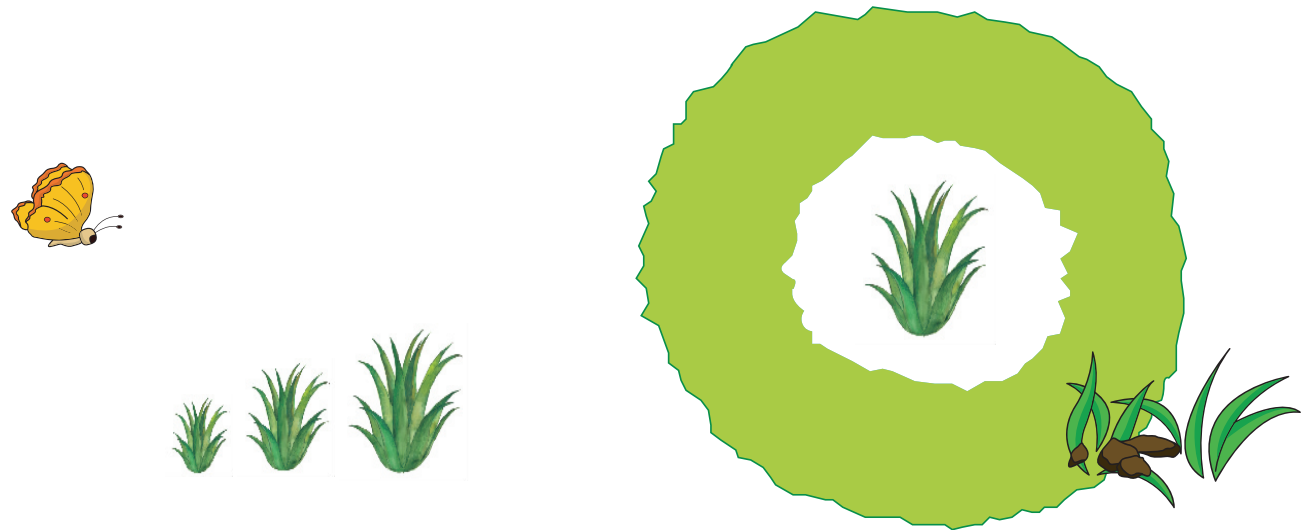
다람쥐처럼 뾰르르 달려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호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손질하고 다듬어준 묘목이 10여 년 뒤 아름드리 나무로 크는 걸 보는 것도 이리 기쁜데, 하물며 사람임에랴. 물 주고 기름 주고 정성을 쏟되, 비바람 이겨내며 스스로 크도록 기다리면서 10년, 20년 후 내가 보살핀 아이들이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는 걸 본다면 그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자란 토양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튼실한 뿌리를 뻗어가며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나가는 걸 볼 수 있다면...!’



## The Gull Sees Farthest Who Flies Highest

*As success followed success, Yunho could not help becoming more and more intent on shoring up the company’s internal stability. He felt that a constant commitment to restraint and economy was crucial.*



### The Man Who Grows Trees

After the summer shower had passed through, Pocheon Farm glowed fresh and vibrant. On every hillside, the lush trees showed off their verdant hues. The streams, grown full with rain, flowed along the valleys and quenched the parched earth. But more than any of these, what truly infused life into the farm was the spirited laughter of children.

Each summer, Pocheon Farm became host to a bevy of young guests, who transformed it into an even more green and vital place. The occasion was the “Namyang Aloe Classroom for Sapling Dreamers,” a children’s camp for the sons and daughters of Health Planners.

The camp was the company’s free service for its Health Planners, whose hectic lives made it next to impossible for them to take their children on fancy vacations. This much-needed program taught its young attendees to live together with others as well as to lead a life in harmony with nature. Yunho was particularly gratified to know that, over the course of the program, these children learned to be proud of their parents’ professions and to hold them in respect and esteem. Watching the children at play with their teachers amid the splashing of water and the cool symphony of cicadas, Yunho felt a smile bloom upon his lips.

The years 1989 and 1990 had been smooth sailing for the company. Its U.S. operation, Aloecorp, had also parlayed its crisis into a new opportunity for growth. After the initial cold wave in early 1989, a crisis that had cost 1 million dollars in damages, a second cold wave struck at the end of that same year. However, the lessons learned during the first incident proved to be invaluable the second time around.

Upon receiving the first forecasts of the cold spell, Bill visited the farms in the entire area and purchased all the aloe he could fi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everyone else was enjoying their Christmas holidays. Sure enough, when the cold wave hit, the surrounding farms, caught defenseless after the holiday break, lost their entire crop of aloe. The resulting scarcity in raw materials forced even prominent American aloe companies to throw in the towel.

This turn of events also enabled the acquisition of Vera Products, a preeminent Aloe company, in January 1990. It was a grand reversal of fortune that occurred just three years after Yunho and Bill first visited Vera Products to purchase concentrated aloe materials.

Now, Aloecorp held the largest aloe farm in the world at its Mexico complex; it also commanded Vera Products’ top-of-the-line facility for producing concentrated raw materials. In short, it had cemented its place as a top contender in the U.S. aloe market.

Namyang Aloe’s performance had also increased exponentially. Its total sales had reached some 20 million dollars, and a new large-scale production plant had begun construction in September of the previous year, in the Jincheon area of Chungcheongbuk-do.

As success followed success, Yunho could not help becoming more and more intent on shoring up the company’s internal stability. He felt that a constant commitment to restraint and economy was crucial.

Pocheon Farm was the ideal place for cultivating such a mindset. From a storage shed filled with spades, hoes, and other tools, Yunho picked out a pair of pruning shears. No matter how many years went by, he never got tired of trimming and tending trees with each passing season.

“What are you doing here?”  
A little boy suddenly interrupted Yunho as he stood pruning some branches.

“I’m trimming it, to make sure it grows well.”

“Can I try?”  
Looking into the boy’s eager eyes, Yunho let out a merry laugh and handed the shears to him. The young aspirant stepped boldly up to the tree, but stopped with the shears raised, unsure of where to begin. He surveyed the tree, then reached out to cut the branch closest to him.

“No, you shouldn’t cut that one. Look here. We should help the tree to grow nice and straight, right? Then which should we cut: a branch that’s growing upwards or one that’s straying sideways?”

“The one that’s straying.”



“Exactly. That way, the nutrients won’t go to waste and the tree will grow tall and straight. The tree can tell whether you’re trimming it out of love or randomly clipping it out of spite. If you just lop branches off haphazardly, it feels offended.”

“Hmph, how can a tree feel anything?”

“Why, of course it can feel. Even trees and plants all wear their unique expressions. Can’t you see them?”

“How do I do that?”

“You can see them if you love them. Trees create cool shades and give us delicious fruit. And that’s not all. They even make the soil good and rich. So how could we help loving them?”

“Trees can make good soil?”

“Yes, they do. If you plant trees in dry and dusty soil, they infuse it with nutrients and moisture. That’s why if you keep planting trees on barren land, it eventually turns into fertile earth.”

“.....”  
The boy gazed quietly at the tree. His concentrated and thoughtful demeanor brought a smile to Yunho’s lips.

“Then, do you love trees best in the whole world?”  
Yunho laughed. “Trees are wonderful. But they’re not the only lovable things. Everything on this earth is wonderful in its own way. And the most wonderful of them all is people.”

“Seungyun, what are you doing? Come quickly! They’re calling for Group 6!”  
Another boy about the same age called Yunho’s young apprentice from some way off.

“Okay, I’m coming! I’ll see you later, Mister!”  
As Yunho glanced after the boy, who trotted away like a busy squirrel, he fell deep into th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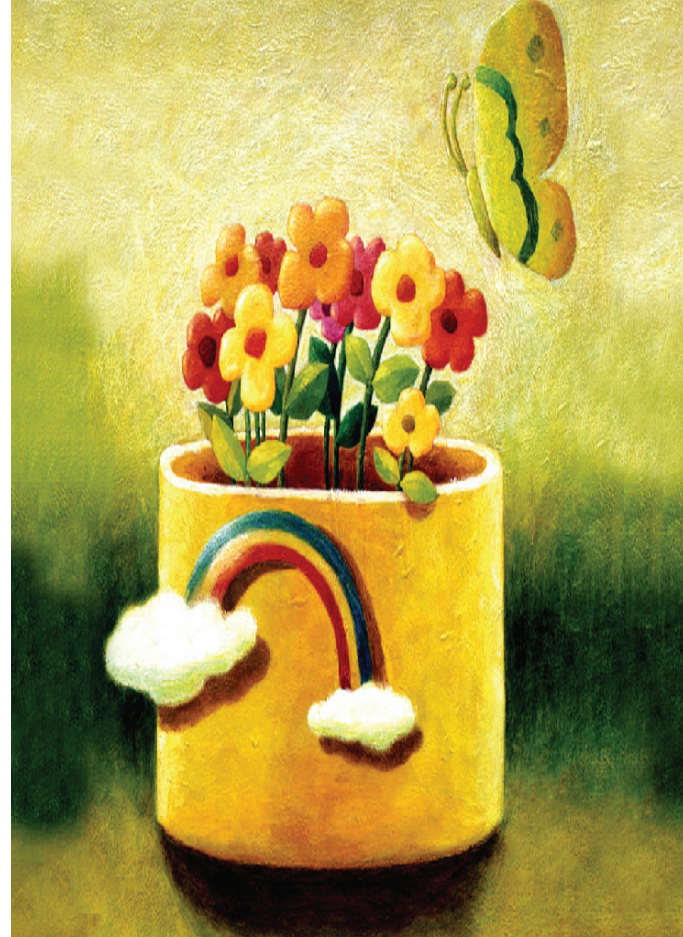
“If it gives me such joy to see a sapling I tended grow into a thriving tree, how great will be my joy when I see the same with these sapling children! To give them water, nourishment, and care, then to wait 10, 20 years while they brave the wind and rain, and finally to see them stand tall as the stalwart pillars of the world… How happy I would be to see them spread their strong roots into the fallow soil they grew in and transform it into rich, fertile earth!”





# Wellness

## 일과 삶의 Stress Management



글 권수남 대리, CTO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화요일 오후. 한 주가 시작된 지 이제 이들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스트레스가 몰려온다. 할 일은 많은데 짜증이 벌써 몰려들면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다. 전화벨 울리는 소리, 옆 직원의 통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발자국 소리... 도무지 일이 안되니 오늘도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 일을 열심히 해도 상사는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성과 보다는 윗사람들의 인간관계 때문에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 같아 착잡하다.

요즘엔 소화도 잘 안 되는 듯, 속도 항상 안 좋고 머리로 멎어서 일에 관한 업무 구상은 커녕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머리로 자주 아프고, 식욕도 없고, 가끔 변비 설사에 병원에도 한번 가야 할 것 같은데, 간단한 체크하러 병원 갈 시간도 없다. 이러다 어느 날 쓰러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오늘날이라도 일찍 집에 가서 토끼같은 자식이 잠들기 전에 보고 싶고, 아내랑/남편이랑 오순도순 얘기도 하며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들기 전 내일을 계획하는 여유로운 마음으

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싶다. 살면서 그리 큰 바람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건가? 나는 뭘 위해서 사는 걸까?

위에 길게 열거한 사항은 직장에 다니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는 일이 아닐까 싶다. 비단,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는 경로는 다양하다. 사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결혼생활 문제, 자식 문제 등등.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평생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살아야 하기에 어쩌면 스트레스와 우리 삶은 불가피한 상관관계인 지도 모른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70%가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www.naver.com [자식] 몇 가지 예를 들면, 미국 심리학회(APA)가 미 전역 1848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8%가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중 75%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돈과 일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Washington Newsis)



한국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듯 하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에 가기 싫다고 응답한 설문조사도 있었으며, 업무 보다는 직장 내 파워 게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직장인도 70%에 이른다고 한다. 직장인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생기는 현상으로는 회사 문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히거나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의 증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긴장이 높아져 심장, 위장, 대장 등에 관련된 병이 생기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기 등의 잔병이 유발되기도 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 Joins. Com, 인다라 한의원: 2007. 10.22)

물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사람 마음과 욕구는 그리 쉽게 마음 먹은 대로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의 개념으로 다루어지기 쉽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모든 방법들이 나에게 효과적일 수는 없다. 스스로 판단했을 때 본인의 성격이 감정을 표출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타입이면 운동, 춤, 노래, 사교 모임 등이 적합하고,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면 명상, 요가, 잠자기, 독서, 영화 감상 등이 좋다고 한다. (중앙일보, 2007. 10.22)

다음은 미국에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많은 책을 쓴 저자이자 Microsoft, McKinsey 등의 대기업과 캘리포니아 대학 같은 학교에서 여러 강의를 통해 유명한

David B. Posen, M.D. 의 스트레스 관리방법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일을 할 때는 성과를 위한 속도와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휴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처음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좋은 스트레스(eustress)로 인해 성과가 증가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오히려 비생산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distress)이며 이로 인해 가장 빨리 오는 증상은 피로이다. 바로 이 때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2시간 노동에 20분 정도의 휴식이 적합하다.

이는 ‘Ultradian Rhythm’ 이라는, 즉 하루에 에너지와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이사이에 低에너지와 비능률이 끼게 된다는 사이클 이론이다. 우리가 잠잘 때 깊이 숙면하는 잠과 꿈을 꾸며 자게 되어 자고 일어난 후에도 피곤한 잠이 있는데, 그 숙면과 꿈을 꾸게되는 사이클 주기가 약 90-120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와같이 집중해서 능률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일정한 사이클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바쁜 나머지 만약 정확히 이러한 사이클대로 휴식을 취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하면, 적어도 업무 중 틈틈이 휴식을 조금이라도 취해서 스트레스를 그때 그때 풀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





숙면을 취하는 것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중요하다. 수면은 스트레스 해소에는 필수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 적당 수면시

간이 7-8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수면이 늘 부족한 상태이다. 당신이 만약 수면 부족이면 보통 때 보다 30-60분씩 일찍 잠을 청하는 버릇을 들이는 시작을 해보라. 한 며칠 또는 몇 주 정도 시도해 본 후, 그래도 피곤을 느끼면 30-60분 더 일찍 잠을 청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또 낮잠을 자는 것도 아주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인데, 낮잠은 두통을 없애고 머리를 맑게 해서 집중력을 높여 좀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적당한 낮잠의 시간으로는 15-30분 정도이며, 이보다 더 길면 몸을 오히려 나른하게 만들 수 있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짧고 적당한 시간대에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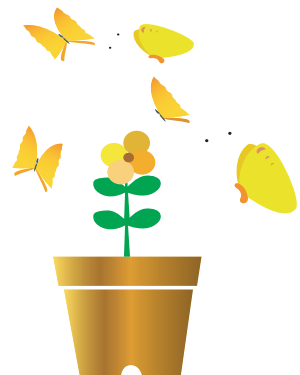
좀더 정신적 작용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스트레스는 자우리의 틀에 박힌 관념 (Belief System)에서도 나온다. 사실상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에는 또 다른 전제와 가설이 있을 수 있다. 관념은 사람들의 철학이거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한다.

첫째는 관념의 결과로 생긴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인데,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여가를 즐기기에 일을 먼저 해야만 한다고 굳게 믿는다면, 난 그만큼 일보다 여가를 적게 갖을 것이다. 이는 단지 일과 여가생활에 대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지만, 나의 행동이 그에 준수하여 움직인다면 노력은 증가하지만 이완은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공식에 따라 스트레스성 행동을 유도하는 게 된다. 또 관념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두 번째 예는 내 관념이 다른 사람들의 관념과 부딪혀 갈등이 생길 때이다. 옷을 매일 갈아입지

않는 아이 때문에 싸우는 부모에게 왜 참지 못하냐고 물었더니, 자기 어머니에게 사람은 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가 자라온 방법에 기본을 둔 의견일 뿐 진실은 아니다. 이에, 사람이 굳이 옷을 매일 갈아입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러한 믿음이 오직 진실은 아니라는 것과 이러한 일은 단지 의견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는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분노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마음을 여는 연습 (Mind Opening Exercise)을 하여야 한다.

여가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영어로는 'leisure'로 라틴어인 'Licere(리계레)'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리계레는 허락되다(to be permitted) 또는 자유스러워지다(to be free)란 뜻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여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고 주체하기 버거운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리지만, 조금은 여유를 갖고 일과 여가를 적절하게 맞춤으로서 조금은 자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서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지혜롭게 조절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약간의 여유를 허락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이에 우리 에코넷의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로의 추구는 계속될 것이며 그러한 일터에서의 일원인 우리는 조금은 더 행복한 직장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Wellness



## Stress management: Balance of work and life.

By J. Soonam Kwon, Assistant Manager, Division of CTO, ECONET Korea Holdings

Tuesday afternoon. It's been barely two days since the new week began, but stress is already starting to pile up. There's so much to do, but it's impossible to keep my concentration. The sound of ringing phones, the chattering of neighboring coworkers, the flipping of pages, the dragging of chairs, even footsteps... Everything distracts me from my work, and it looks like I'll have to stay late again just to get things done. No matter how hard I work, my superiors don't seem to notice. Since the tug-of-war among the higher-ups, rather than real results, seems to dictate what gets done, efficiency is seriously compromised and morale is down. These days, even my digestion isn't what it used to be. I'm constantly feeling sick and my head is in a daze; it's impossible to think properly, let alone come up with ideas for work. I get frequent headaches and my appetite is gone. Because of the constipation and diarrhea, I feel like I should be seeing a doctor, but there's no time for even a simple checkup.

I hope I don't just keel over one of these days. If only I could go home early just for today-see my darling kids,

spend some time with my wife, enjoy a delicious meal, and take some quiet time before bed to take stock of the day and make plans for the next... That's not too much to ask, is it? But the reality is so different. Do I have to keep on living this way? What am I living for anyway?

The above catalogue of grievances is likely a familiar one for anyone with a job. And jobs aren't the only factors that cause stress. Business issues, relationship issues, marriage issues, child-rearing issues... the list is endless. Perhaps stress is an inevitable condition of modern living: we encounter stress and deal with it almost everyday in our lives.

In fact, 70% of people who visit hospitals say that they are under stress in their everyday lives (www.naver.com iKnowledge). To cite some relevant statistics, in a national survey among 1,848 people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48% of Americans responded that they were having trouble sleeping due to stress, while 75% of these noted that their stress was related to money and work (Washington Newsis). In Korea,



a particularly large number of office workers seem to be experiencing stress. One survey found that six out of 10 office workers did not wish to go to work, while another found that some 70% of workers were under significant stress not because of their workload but because of power games within the company (JoongAng Ilbo & Joins.com, October 22, 2007).



Symptoms caused by severe stress in the workplace include a suffocating sensation, dizziness, headache, or nausea felt upon entering the office. Moreover, the constant tension suffered by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can lead to diseases in the heart, stomach, or large intestines, while a weakening of the immune function leaves the body vulnerable to such minor ailments as colds and flu's (JoongAng Ilbo & Joins.com, Indara Oriental Medicine Hospital, October 22, 2007).

People say that mental discipline and positive thinking can reduce stress, but the human mind is not so easily manipulated; thinking and doing, in other words, are two very different things.

If stress really is inevitable, how can we at least minimize its impact in our lives and endure it in a clever way? There are many ways of relieving stress, but none work the same for everybody. If you feel that your stress level decreases when your emotion is externalized or expressed, then activities such as exercising, dancing, singing, or social gatherings may be appropriate for you. If you are more inclined to hide your emotions, solitary activities like meditation, yoga, sleeping, reading, or watching movies are recommended (JoongAng Ilbo, October 22, 2007).

In addition, the following passages introduce several

suggestions by David B. Posen, M.D., who has not only written many books on stress management, but also delivered numerous lectures to both corporate and academic audiences, including Microsoft, McKinsey,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regards to stress management at workplace, it is importa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speed needed to produce results and the rest needed to cope with the stress. When stress first begins to increase, this positive stress, or eustress, can actually increase performance. However, if such stress continues to increase, it eventually reaches a point where it becomes counterproductive. From this point on, one experiences negative stress, or distress, and the symptom that emerges most promptly is fatigue. It is at this precise moment that one must rest; 20 minutes of rest per every two hours of work is recommended.

This line of thought is based on the theory of "ultradian rhythms" - the idea that, during the course of each day, intervals of low energy and inefficiency recur between periods of high energy and focus. As an example, when we go to bed, we experience two types of sleep: deep restful sleep and fatiguing sleep that is disturbed by dreams. The alternation period between the two types of sleep- sleeps with or without dreams- is roughly 90 to 120 minutes. As we work during the day, the similar "ultradian rhythms" mechanism often affects our ability to work that throughout the day, we alternatively work with focus and high efficiency and also with bluntness and low efficiency. Therefore, as mentioned earlier, you should allow yourself about 20 minutes of rest for every 2 hours of work in orders to perform at an optimum level



of efficiency. If, however, you are just too busy to coordinate your resting time in accordance with this cycle (20 minutes break for every 2 hours of work), it is still important to at least take periodic breaks throughout the workday to release stress, and thus improv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other problem caused by stress is lack of sleep. Needless to say that sleep is essential and one of the most crucial factors for a healthy life. If you are having trouble in getting deep sleep due to stress, then your life cycle may become viciously unproductive. Therefore, you should really manage your stress level, so that it may not effect your sleeping pattern. Although it is commonly known that one should sleep seven to eight hours each day, the majority of people continue to function on insufficient sleep. If you feel that you're not getting enough sleep and want to improve your sleeping pattern, try going to bed about 30 to 60 minutes earlier than you normally do. If you still find yourself fatigued after about a week, adjust your bedtime by another 30 to 60 minutes earlier. Also, speaking of seep, taking naps is another good way of relieving stress. Naps eliminate headaches and clear your head, thus improving your concentration and capacity for lucid thought. The recommended duration for a nap is 15 to 30 minutes, but anything longer can actually make you more lethargic and cause insomnia. So it is important to keep a short timeframe when trying this "nap" method.

From a more spiritual point of view, stress also may be frequently caused from our set of belief systems. When what you believed to be true is challenged by other beliefs or values, you will likely find yourself to be in stressful situations. Mainly there are two ways in which stress may be caused by belief systems. In the first instance, stress can be produced by an action that is the result of one's value system. A good example of

this is when someone believes that they must do sufficient work before they can enjoy quality relaxation, and thus ends up taking less time to relax. Although this belief is just one opinion among many regarding work and rest, it controls this particular person's actions in a way that increases effort for work while reducing relaxation; it is, in short, a belief that produces stress-inducing behavior. The second way in which belief systems can produce stress is when one's beliefs clash with those of others and cause conflict. When a couple who fought about their son because he wouldn't change his clothes everyday was asked why the issue caused such a problem, the wife replied that her mother had taught her to change her clothes every day. This is simply her opinion based on the way she was raised, that it's not a universal or binding truth. If the wife accepted the fact that one may not necessarily need to change clothes everyday and realize that her "belief" was merely a matter of personal opinion, her stress as well as her anger would eventually decrease. In essence, this requires "mind-opening" exercises.

The word "leisure" is derived from the Latin word "licere", which means "to be permitted" or "to be free." Hence, it may be fair to say that not taking enough "leisure" time is almost like not permitting yourself to be free (from work or from your own life in general.) Today, we live in a society where we often encounter situations of having to endure heavy stress caused by various factors. Nonetheless, if we better understand stress and learn ways to manage it, that is by allowing ourselves a measure of leisure, we will be on our ways to enjoying a quality life.

Such efforts will also contribute to ECONET's continuing quest to make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and happiness together."

(Source: www.naver.com iKnowledge)





## 2007년 가을 Global CEO Meeting

글 이재은 상무, CKO, 에코넷 한국 홀딩스

봄과 가을, 일년에 두 차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최되는 Global CEO 미팅이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첫 날은 각사에서 2008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적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각 계열사간에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ECONET에서 만들어진 여러 위원회가 그동안 진행하였던 활동 결과를 제시하고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에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고궁을 방문하고 한국전통 음식점을 방문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략적 방향 등 중요한 내용의 공유도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다. 오는 2008년부터 미국과의 공식회의는 통역없이 영어로 진행한다는 목표를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Global CEO 미팅에서 처음으로 통역없이 영어로 진행을 한 것이다.

덕분에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었던 예전 회의에 비해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이점이 있었다. 임원 대상 회의에서 통역없이 영어로 진행된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ECONET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가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Fall 2007 Global CEO Meeting

By James J.E. Lee, Vice President(CKO), ECONET Korea Holdings

The semiannual Global CEO Meeting, which takes place alternately in Korea and the U.S., convened its latest session in Seoul on October 9 through 11. On the first day, each company shared its strategic direction for 2008 and participated in a general debate on enhancing synergy among the various subsidiaries. The second day of the meeting was devoted to presentations by the diverse committees within ECONET; the committees reported their activities over the past half year and engaged in mutual consultation. On the third day, the attendees enjoye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deepen their relationship by visiting Korea's historic palaces and eating at a traditional restaurant.

The sharing of strategic direction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formed the crux of October's Global CEO Meeting, but there was another small yet highly significant aspect to this latest session. A goal had been set three years ago that, starting in 2008, all official meetings with the company's U.S. operation would be conducted in English without the aid of an interpreter. As an active step toward realizing this goal, the Global CEO Meeting in Seoul was carried out entirely in English.

Thanks to this change, the meeting proceeded faster than on previous occasions, when communication was delayed by the need to interpret first one side, then the other. Now that an executive-level meeting has blazed the trail, we look forward to seeing English used prominently in all meetings of ECONET.





## 해피 바이러스 조 피날레스

유쾌한 유머와 일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직원들의 쌓인 스트레스를 물리쳐주는 그는 알로콥의 자랑스런 욕심쟁이~



글 김수겸 상무, 생산관리부, 알로콥 미국

내게 맡겨줘~

언제나 자신있는 언행,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표정. 웬지 모르게 뭔가를 부탁하고 싶은 훈남. 조 피날레스 (Joe Pinales).

그가 이번 3분기를 대표하는 자랑스런 직원으로 선택된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다. 2년 전 공무팀의 일원으로 알로콥과 인연을 맺은 조는 현재 분말제품 제조팀의 일원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일에 대한 열정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재밌고 친절하게 대하며 어떤 곳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해치우는 서번트 리더십의 선두주자이다. 맡은 업무가 일찍 끝나면 어디 도울 데가 없나 돌아보느라 분주하고, 잔업이 있을 때면 언제 어느 시간이건 항상 자리를 지켜주는 믿음직한 수퍼맨!



## Joe Pinales



그가 나타나면 조금 시끄럽다. 넘치는 열정과 활력으로 주변을 온통 축제 분위기로 변화시키는 사나이, 조! 그는 알로콥의 생산능력을 배가시키고 업무를 축제처럼 즐기게 만드는 분위기 업~맨이다. 그 뿐이 아니다. 휴식 시간에는 그 날의 신문을 재빨리 통독하여 주요 뉴스를 직원들에게 전파해주는 지역 앵커의 역할도 주저하지 않는다. 유쾌한 유머와 일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직원들의 쌓인 스트레스를 물리쳐주는 그는 알로콥의 자랑스런 욕심쟁이~

과연 그에게 두려움이란 것이 있을까? 답은 이렇다.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 Happy Virus Joe Pinales

*Always using his riotous sense of humor and infinite passion for work to blow away our stress, Joe is Aloecorp’s pride and joy.*



By Joseph Kim, Senior Director, Aloecorp USA

Leave it to me!  
His words and actions exude confidence. His face wears an expression of fearlessness. He inspires you to depend on him for favors. His name is Joe Pinales.

Where Joe is concerned, being named “Exemplary ECONETian” for the third quarter of 2007 is an accolade that feels long overdue. Joe, who first joined Aloecorp two years ago as a maintenance operator, has since gone on to stake his own ground in the Powder Processing team.

Not only does he devote himself to his work with great passion, but he also treats everyone with kindness and humor. He never shirks difficult or irksome tasks; in fact, he is always the first to step up to the plate. A true practitioner of servant

leadership, Joe occupies himself with helping others when his own work is done. And even when business runs overtime, he doesn’t budge from his place until it’s done, regardless of when or where. It’s Super Joe to the rescue!

Things get a little rowdy when he’s around. With his innate enthusiasm and vitality, he turns everything around him cheery and festive. He’s a fun-maker who doubles Aloecorp’s productivity and makes work as enjoyable as play. And that’s not all. During breaks, he quickly reads through the day’s newspapers and relays the important items to his co-workers, like a local news anchor. Always using his riotous sense of humor and infinite passion for work to blow away our stress, Joe is Aloecorp’s pride and joy.

What could possibly strike fear into a man like Joe?  
The answer is... his beloved w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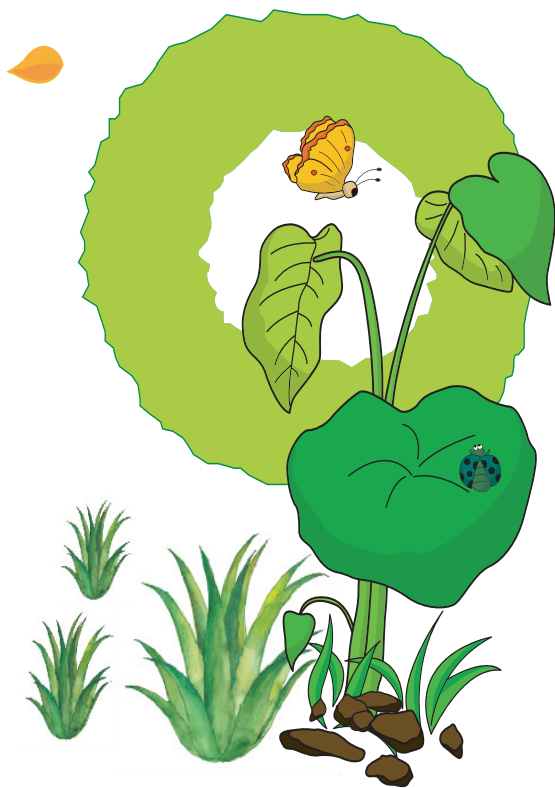
# Joe Pinales



Wife and young Children



# Go! Go! Our Team



## 알로에 명품의 주역들

세계가 찬탄하는 세계 최고의 천연물 제품의 대명사, 유니베라! 세계 유명 천연물 회사들이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유니베라 제품들의 제조비법!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명품 탄생의 주역들을 소개합니다. 신선한 알로에의 효능을 전 인류에게 선사하기 위해 0.0001%의 오차도 허용치 않고 생산현장에서 완벽을 기해 세계 최고의 알로에 제품들을 탄생시키는 각 사별 위대한 생산의 주인공들의 꿈과 열정을 만나보시죠.

## The Masters behind the Masterpieces

*As the producer of the finest in natural products, Univera commands the admiration of the world. Preeminent natural product companies around the*

*globe covet the secrets behind the creation of Univera's products. And those secrets are guarded by an elite set of individuals whose pursuit of perfection in developing aloe products does not allow for even a 0.0001% margin of error. Meet the passionate and ambitious masters behind Univera's masterpieces!*



알로코프 미국(텍사스) / Aloecorp USA(Texas)

1. 부서명 : 알로코프 텍사스 운영팀

2. 직원수 : 16명

김수겸 상무 (액상제조팀-4명, 분말제조팀-4명, 물류선적팀-4명, 생산지원팀-3명)

윗줄 왼쪽부터  
조 P., 조셉, 후안 S., 에스테반, 알베르토, 호세 R

아랫줄 왼쪽부터  
레티샤, 호세 G., 루루, 조 Q., 알리사, 산후아나, 마리아, 로  
자린다, 로사, 노르마, 후안 A.

최근 라이프드로 온 영업관리 담당 노르마를 우리 팀의 일  
원으로 초대하였습니다.

Top from left  
Joe P., Joseph, Juan S., Esteban, Alberto and Jose R.

Bottom from left  
Leticia, Jose G., Lulu, Joe Q., Alicia, San Juana,  
Maria, Rosalinda, Rosa, Norma and Juan A.

We invited Norma, Senior Sales Coordinator who  
was just relocated in Lyford as part of our team.



### 3. 하는 일

우리는 고객이 만족할 최고의 상품을 생산합니다. 자연이 주는 최상의 혜택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우리에게 있어 극  
복하지 못할 도전이란 없습니다.

1. Team Name : Aloecorp Texas Operation

2. Number of employees : 16 (Liquid Processing-4, Powder Processing-4,  
Shipping and Receiving-4, Operation Management Team-3 and Joseph Kim, Senior Director)

### 3. What we do

We are manufacturing the highest quality product to satisfy our customer.

We are providing nature's best to human being. No challenge is too big for us.



- 물류선적팀 후안 A., 호세 G., 로살린다, 룰루 뮤노즈(팀장)  
Shipping and Receiving Juan A., Jose G., Rosalinda and Lulu Munoz(Supervisor)
- 액상제조팀 알만도, 알베르토, 호세 R., 에스테반 구즈먼(팀장)  
Liquid Processing Armando, Alberto, Jose R. and Esteban Guzman(Production Manager)
- 분말제조팀 산후아나, 마리아, 조 퀴노네스(팀장), 조 P.  
Powder Processing San Juana, Maria, Joe Quinones(Supervisor), and Joe P.
- 생산지원팀 로사(일정담당), 후안 살다나(공장장), 레티샤(재고관리)  
OMT(Operation Management Team) Rosa(Scheduler), Juan Saldana(Plant Manager) and Leticia( Inventory Control)







알로콥 멕시코 / *Aloecorp Mexico*

1. 부서명 : 알로콥 멕시코 운영팀

2. 직원수 : 129명

담당이사 어네스토 살가도 (생산팀-88명, 공무팀-9명, 생산운영팀-24명, 생산지원팀-7명)

3. 하는 일

우리는 식물의 유익한 성질을 보존하고, 나아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생물학적 기능과 효용이 확실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내는 팀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왼쪽부터 페레스 아벨, 곤잘레스 헤나로, 칼로스 알만도, 몬탈보 헤수스, 디에고 알만도, 로스트로 안토니오, 니에베스 아르놀포, 마누엘 알레한드로 그리고 폴로 프란치스코 (공무팀장)

from left Perez Abel, Gonzalez Genaro, Carlos Armando, Montalvo Jesus, Diego Armando, Rostro Antonio, Nieves Arnulfo, Manuel Alejandro, Polo Francisco(Maintenance Manager)

1. Team Name : *Aloecorp Mexico Operation*

2. Number of employees : 129 (Processing-88, Maintenance-9, General operators-24, Operation Management Team-7 and Ernesto Salgado, Director)

3. What we do

We are manufacturing the product by guaranteeing biological activity and efficacy in assuring the beneficial properties of the plant have been preserved and even enhanced. We are the team to make everything happened!! Nothing impossible!!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1. 부서명 : 생산팀

2. 직원수 : 3명 (유재호 팀장, 임경진 사원, 박종성 사원)

3. 하는 일

생산팀은 유니젠 한국과 유니젠 미국에서 연구개발된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생산실이기에 한 여름에도 온 몸 전체를 우주복과 같이 생긴 생산실 전용 옷으로 무장한 채 일을 하고, 한겨울에도 신선함이 생명이기에 단 1초도 냉방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생산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항상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에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체력단련을 구성원의 기본 임무로 삼고 있다.

1. Team Name : *Manufacturing*

2. Number of employees : 3 (Jaeho Yoo Team Manager, Kyoungjin Lim Staff, Jongseong Park Staff)



3. What we do

The manufacturing team produces materials developed by Unigen Korea and Unigen USA. Because maintaining a sterile environment is a top priority on the manufacturing floor, we work clad from head to toe in special attire resembling space suits, even in the blazing heat of summer. Our numbers are few, but we're an elite crew; we stay on top of the production schedule demanded by our clients, no matter what the conditions. Although we encounter many hardships, we always do our utmost in our assigned places: out of sight, but the picture of industry nonetheless!



왼쪽부터 임경진, 박종성, 유재호

from left Kyoungjin Lim, Jongseong Park, Jaeho Yoo





네이처텍 / Naturetech



1. 부서명 : 생산본부, 생산기술팀

2. 직원수 : 81명

(이시찬 생산본부장, 김영덕 팀장, 천창식 과장, 김정희 대리, 김연진 사원, 전영숙 사원, (생산직 사원-75명))

3. 하는 일

우리 Naturetech 생산기술팀은 생산본부장 이시찬 상무를 주축으로 김영덕 팀장 외 79명으로 구성되어 ECONET 수직 계열 하에 ECONET 가족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과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맡고 있다.

생산기술팀 모두가 ECONET 가족과 인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2005년부터 실시한 8개의 분임조 활동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꿈을 함께하는 ECONET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우리가 만든 제품이 우리의 가족은 물론 세계인이 함께 애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생산하고 있다.



시그마 질주 & 깔꿈이  
Sigma Spic-and-Span

1. Team Name : Production Technology Team, Production Division

2. Number of employees : 81 (Sichan Lee Division Head, Yeongdeok Kim Team Manager, Changsik Cheon Manager, Jeonghee Kim Assistant Manager, Yeonjin Kim, Yeongsuk Jeon, and 75 production staff)



시그마 한마음  
Sigma One Heart

시그마 화장품  
Sigma Cosmetics

3. What we do

The NatureTech Production Technology Team is led by Production Division Director Sichan Lee and composed of 79 members including Team Manager Yeongdeok Kim. Our team manufactures all the products marketed by vertically integrated companies within ECONET, as well as the products required by our client companies.

Fueled by the mission of ensuring the health of the ECONET family and all human beings, each member of the Production Technology Team works tirelessly to create the highest quality products possible, especially in their activities as part of the eight 6-Sigma teams established in 2005.

As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we are extremely proud to know that the products we make are used not only by those close to us, but also by people all over the world. With this awareness, we do our utmost everyday to make each product the best that it can be.





## 환상적인 할로윈 축제



점심식사로 준비된 박쥐 날개, 사람 팔꿈치, 피색 스튜, 오렌지색 굼벵이, 거미와 눈알 컵케이크 그리고 거미 줄 쿠키 등을 모두가 재밌어하며 맛있게 먹었다.



Lacey Pumpkin carving contest



Aloecorp Lyford Spooky desserts



Lacey Ahmed



Lacey Tara and Jenni



Aloecorp Lyford Jason Joe P

## Halloween

글 이세현,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에코넷 미국 홀딩스

10월의 마지막 주는 할로윈을 축하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미있는 행사들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조각하고 장식한 호박을 가져와 컨테스트에 내놓고, 평소 자신이 되고 싶었던 캐릭터의 의상을 입고 사무실에 등장하는 멋진 이벤트가 마련됐다.

즐거운 할로윈 축제를 위해 직원들이 사무실 여기저기에 할로윈 장식들을 달았다. 레이시 오피스의 로비는 무서운 귀신, 해적 그리고 날아다니는 박쥐 등으로 장식되었다. 특히 이 무서운 귀신은 움직임을 감지하면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사무실이 바로 로비 옆에 있는 리건 사장은 하루 종일 흐느끼는 귀신 소리를 들어야 했다.

드디어 할로윈 데이인 31일. 많은 직원들이 핑키한 가발과 색색의 화려한 의상과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여 사무실

을 온통 할로윈 축제 분위기로 물들였다. 각자 음식을 가져와 동료들과 나눠먹는 Potluck 형식의 점심식사 시간에는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들이 넘쳐났다. 오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호박 조각 컨테스트와 의상 컨테스트의 우승자가 발표되었다.

호박 조각을 컨테스트에 제일 처음 출품했던 닉 페리스 (GMP 문서관리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가 크레이트 앤 베릴 (미국의 유명 가정용품 판매 회사)의 풍뎉 남비를 상품으로 받았고, 에드윈 가마우아 주니어(어소시에이트 제네럴 카운셀, 에코넷 홀딩스 미국)는 의상 컨테스트의 우승자로 시애틀 수퍼 소닉스와 유타의 재즈 농구경기 티켓 2장과 하루 휴무를 상품으로 받았다.

에드윈은 미세스 다웃 파이어로 분장을 해서 그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두꺼운 화장과 촌스런 홈드레스, 그리고 계속 가지고 다녔던 귀여운 여자 가방 등을 고려할 때 에드윈이야말로 정말 이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4시에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Trick-or-Treat” 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갖가지 복장의 어린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에 사탕을 나눠주는 어른들은 미소를 지을 수 밖에 없었다.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사탕뿐만 아니라 피자도 준비되었다.

텍사스 라이포드의 알로콥과 힐탑 가든 직원들도 Potluck 과 의상 컨테스트로 할로윈을 축하했다. 점심식사로 준비된 박쥐 날개, 사람 팔꿈치, 피색 스튜, 오렌지색 굼벵이, 거미와 눈알 컵케이크 그리고 거미줄 쿠키 등을 모두가 재

밋어하며 맛있게 먹었다.

가장 최근에 채용된 빈센트 사베즈와 야렐리 발데즈가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는 마리나 슈아레즈와 함께 최고의 의상 수상자를 뽑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다. 로마 공주 의상을 입은 샌 후아나, 제이슨으로 분장한 조 피날레즈, 영화 <링>에 나오는 귀신으로 분장한 마리아 멘도자, 아랍 여자로 분한 레티샤 고메즈, 뚱뚱한 요리사로 분장한 (필스버리 반죽 소년) 후앙 살다나가 컨테스트에 참가했는데, 후앙 살다나가 우승자로 할로윈 선물 바구니를 받았다.

이번에 또다시 멋진 행사를 치러낸 에코넷 미국 인사부에 모든 직원들을 대신 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Haunted Halloween Happenings



For lunch everyone dug into the potluck dishes such as bat wings, human elbows, bloody stew, orange maggots, spider and eyeball cupcakes, and spider web cookies.

Halloween



Lacey Halloween decoration in lobby



Lacey Angelita and Myami



Aloecorp Lyford Roman Princess San Juana

By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ECONET USA Holdings

The last week of October was filled with many fun activities to help us celebrate Halloween. Employees were encouraged to bring in their pumpkins for a pumpkin carving/decorating contest and were also allowed to dress up in costumes as a character of their choice.

Here and there in the office, Halloween decorations started showing up. The lobby of the Lacey office was decorated with a scary ghost, a pirate and flying bat. The

scary ghost lady worked with a motion detector and Regan, whose office is right next to the lobby, had to hear a creepy moaning sound all day long.

On the 31st, a lot of people showed up with funky wigs, colorful dresses and matching attitudes. The lunch was potluck and everybody brought in food to share with their colleagues. Lunch tables were filled with delicious food and happy conversation. Later that afternoon, after the many ballots were counted, the winners of the pumpkin

carving and costume contests were announced.

Nick Ferris (GMP Document Control Coordinator, Univera USA) won a Crate and Barrel Fondue pot for his pumpkin which was the first pumpkin entered in the contest. Edwin Kamauoha, Jr. (Associate General Counsel, ECONET USA Holdings) received 2 tickets to a Seattle Supersonics vs. Utah Jazz basketball game & one Free Day for his costume. He dressed up as Mrs. Doubtfire and brought instant laughter to everyone who saw him. With heavy make up, homey dress and a lovely purse he carried everywhere, he surely deserved this prize.

At 4PM, employees' children started coming to the office for "Trick-or-Treat"-ing. Little kids running around the office in their various costumes brought smiles to the adults as they passed out the traditional "treats". Besides the sweets, pizza was provided for the children as well.

Meanwhile,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employees celebrated Halloween day with a potluck and costume contest in Lyford, Texas. For lunch everyone dug into the potluck dishes such as bat wings, human elbows, bloody stew, orange maggots, spider and eyeball cupcakes, and spider web cookies.

Their most recent new hires, Vicente Chavez and Yareli Valdez, along with Marina Suarez (temporary employee) were given the hard task of voting for the best costume. Among the participants were San Juana Leos who dressed up as a Roman Princess; Joe Pinales as Jason; Maria Mendoza, the Ring Witch; Leticia Gomez, the Arabian girl; and the winner, Juan Saldana, dressed as the really big chef (or the Pillsbury Dough Boy) won a Halloween gift basket.

We thank for ECONET USA HR team who did another great job.



Aloecorp Lyford Costume Winner



Lacey Mellisa and Julie



Lacey Jessica Kara Lea



Lacey Shirley Fonzy Laverne



빨강은 눈에 잘 띄는 강렬한 색깔이다. 염료나 도로로 빨강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쓰이는 색이지만, 특히 중국문화에 있어서는 빨간색 자체가 축하, 성공, 행운, 충절, 풍요 등 여러 깊은 의미를 지닌다.

빨강 계통의 색 중 가장 흔히 쓰이는 색깔은 태양신, 화신 등을 숭배하던 원시 종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전통축제에 빨강이 등장하는데, 그 중 가장 성대한 축제인 춘제(春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자로 빨강을 나타내는 복(Fu)자를 문에 붙이기도 하고, 붉은 종이 위에 검은 색으로 쓰여진 문구를 문 양옆에 붙이곤 한다. 거리에는 붉은 등불들이 즐비하고, 폭죽들마저 붉은색으로 싸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축제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빨간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전통식 집을 지을 때 대들보를 놓을 차례가 되면, 목수는 대들보를 놓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상서롭기를 기원하는 붉은 종이를 벽에 붙인다.

## 빨간색에 대하여...



▲ 붉은 면서포 Red Veil



▲ 빨간색 전통 우산 Traditional red umbrella

글 맨디 리, 영업 코디네이터, 알로콧 중국

### 빨간색과 관련된 풍습들

빨간 달걀은 중국 곳곳에서 행복을 나타내는 징표로 널리 쓰이며, 결혼, 출산, 생일 등 경사에 선물로 등장한다. 빨간색으로 칠한 달걀을 친척들, 친구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전통은 생의 시초와 관련된 오래된 믿음에서 유래되었다. 옛날 사람들은 달걀이 사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믿음으로 인해 달걀은 탄생과 혈통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상서로운 의미를 지니는 붉은색으로 칠해지게 된 것이다.



아기가 새로 태어난 지 정확히 한 달 되는 날에는 정갈히 목욕을 시킨 후 빨간 복대를 둘러주곤 한다. 아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빨간 복대는 연약한 아기의 배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 북부 산서성 등 일부 지방의 여성들은 이러한 복대를 평생 착용하기도 한다. 오늘날 빨간 복대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으며 여성의 색시함을 강조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가 한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조출한 의식을 올리게 되어 있었다. 이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아이의 이마 한가운데에 주홍색 점을 찍는 것이었다. “개천안(開天眼: 신성한 눈을 열다)”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는 아이가 공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를 기원하는 바램을 상징하였다. 용선절 축제날에는 부모들이 아이의 손바닥, 이마 중앙, 발바닥 등을 주홍색으로 칠하여 총명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12지신을 이루는 열두 가지 동물들은 12년을 한 주기로 각기 한 해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12년마다 자신이 태어난 해가 돌아오면, 이는 생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인식되곤 한다. 실제로 인간은 12세에는 사춘기에 들어서고, 24세에는 사회에 입문하며, 36세에는 성숙한 한 사람의 성인이 된다. 또한 48세에는 사회적 성공을 이룩하여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고, 60세에는 은퇴를 하여 휴식을 취하며, 72세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여생을 즐기게 된다.



혼례가 있는 날 밤, 하객과 친지들은 신방에 몰려들어 새로이 맺어진 부부를 놀리고 이들에게 장난을 치곤 한다.



▲ 신랑신부의 가마 Sedan Chair for groom and bride

이처럼 인생에서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때에는 전통적으로 불운이 닥칠 수 있는 해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곳곳의 한족 성인 및 아이들은 떠해가 오면 붉은 허리띠를 착용함으로써 악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곤 한다. 음력으로 설달 그믐에는 붉은색 속옷을 입기까지 한다.

### 빨간색과 관련된 행사

중국에서 결혼식은 흔히 빨간색 행사로 불리어지는데, 이는 전통혼례식에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신부는 빨간 옷, 빨간 면사포를 쓰고 빨간색 가마에 앉으며, 신부의 가마 뿐만 아니라 문, 창문, 나무, 벽 할 것없이 곳곳에 빨간색 종이에 쓰인 기쁨 희(喜)자가 붙여지게 된다.

오늘날 중국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거행된다.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절차가 혼례의 하이라이트이다. 신부가 여동생이나 언니, 혹은 들러리와 함께 방에서 나오면 신부의 아버지가 그녀를 이끌어 신랑에게 넘겨주게 된다.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 신부는 붉은색 비단을 함께 들거나 착용한 채로 하늘과 땅, 부모님, 그리고 서로에게 절을 한다. 일부 혼례에서는 중매쟁이들도 함께 절을 하기도 한다.

신부는 보통 머리에 붉은 면사포를 쓰는데, 이는 신방에서 신랑만이 벗길 수 있다. 이 전통은 고대 중국에서 12세가 넘는 미혼 여성은 친척을 포함한 모든 남성을 쳐다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붉은 면사포는 신부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는 최초의 남성일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 반면, 신랑이 붉은 면사포를 쓰는 것은 오래된 전설에서 비롯된 전통이다. 이 전설에 의하면, 오랜 옛날에 후시(Fuxi)와 뉘와(Nvwa)라는 이름의 오누이가 있었는데, 이 남매는 인류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남녀로 맺어져야만 했다.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풀로 짠 천을 얼굴에 드리웠는데, 오늘날 신랑이 쓰는 붉은 면사포는 이 천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혼례가 있는 날 밤, 하객과 친지들은 신방에 몰려들어 새로이 맺어진 부부를 놀리고 이들에게 장난을 치곤 한다. 이는 신방에 숨어 있을 지 모르는 여우나 악귀들을 소란스러운 장난으로 쫓아내어야 한다는 미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몇몇 지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신랑신부의 신혼 잠자리를 살피어 며느리가 정말 처녀였는지를 점검하기도 하는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전통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였다.

▲ 신혼부부를 위한 빨간 침상 Red bed for new couples



## Shades of Red

By Mandy Li, Sales Coordinator, Aloecorp China

*Red is a strong color that stands out. It has been used in almost every culture in dyes and paints, but in Chinese culture, the color itself is infused with meaning. It symbolizes celebration, success, auspiciousness, loyalty, and affluence.*

*The particular hue of the color most widely used is said to originate from ancient people's worship of the sun and fire gods. Almost without exception, red appears in various kinds of traditional Chinese festivals, and of course largest of all, the Spring Festival. Fu, the Chinese character for red, is usually posted on doors, and the characters hung on either side of the door usually feature red paper and black characters. On the streets, red lanterns abound, and firecrackers are also sheathed in red. Aside from festivals, red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fe for the Chinese.*

Red customs

When the upper beam is about to be laid during the construction of a traditional house, the carpenter posts a red paper on the wall with everything auspicious written on it.



Red eggs are a popular way to express people’s happiness across the country, and are usually given on various occasions like marriage, birth, and the one full month birthday celebration. Because of the auspicious connotation of the color red, eggs painted in red are delivered to relatives and friends to celebrate the happy event. This tradition is related to ancient beliefs about the beginning of

life. They believed eggs could drive away evil spirits. Thus eggs are related to birth and ancestral lineage.

Red bellybands are also worn by newborns on the day they turn exactly one month old after taking a bath. A traditional way to protect the baby, the bellyband keeps the child’s belly warm. Women in some regions like northern Shaanxi Province, also wear them from cradle to grave. Now it has become fashionable and is considered sexy for women to wear these bands.

In ancient China a small ceremony was held when a child was to begin learning Chinese character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dures was to paint a spot of red cinnabar in the middle of the child’s forehead. This is also called ‘opening the heavenly eye’ which symbolizes the wish for children to have a bright outlook on their studies. During the Dragon Boat Festival, mothers also often painted children’s palms, the center of their foreheads, and the soles of their feet with cinnabar, praying for their increased intelligence.

The Chinese zodiac is broken up into a 12-year cycle, with each year represented by an animal. So every twelve years, when one’s sign recurs, is considered an important milestone in one’s life. At 12 years old one enters adolescence, at 24 one enters society, at 36 one has become a mature adult, at 48 the time has come to achieve success and win recognition, at 60, one can retire and rest and 72 is the time to take care of oneself and enjoy the natural span of one’s life.

Even though the recurrent years symbolize life changes, they are also generally considered as unlucky years in traditional thought. Because of this, Han adults and children across the country usually wear red waistbands during their recurrent years, for protection from evil spirits. On the last day of the lunar calendar, some even wear red underwear.

Red events

Wedding ceremonies are usually referred to as red events in China because of the dominant use of the color red in traditional wedding ceremonies. The bride wears a red dress and veil and sits in a red bridal sedan chair. Pasted on the doors, windows, trees, walls, and the bride’s sedan is the Chinese character Xi, meaning happy.

Today, a standard wedding goes something like this:  
Escorting the bride to the groom’s house is the highlight of a wedding. The bride will take her dowries, which are customarily wrapped in red, to the groom’s house on the wedding day. The bride is usually accompanied from her room with her sister or bridesmaid. Then the bride’s father will take over and give his daughter to the groom.

Arriving at the groom’s house, the new couple will jointly hold, or wear, a piece of red silk, and make formal bows to heaven and earth, their parents, and each other. In some cases, the matchmakers also bow.

The bride also usually wears a red veil on her head, which can only be lifted by the groom in the bridal chamber. This is because unmarried women above the age of 12 in ancient China were not allowed to see other men, even if they were relatives. The function of the red veil was to make sure the groom was the first man, other than her father, to see the bride. The reason the groom wears red veil is because of a myth - according to legend, there were a brother and sister named Fuxi and Nvwa. The siblings formed a union in order to continue the human race, but they were so shy about doing so that Nvwa used cloth made from woven grass to cover her face. The red veil the groom wears represents the cloth that covered Nvwa’s face, hence the beginning of the red veil tradition.

On the wedding night, relatives and guests crowd into the bridal chamber to tease the new couple and play practical jokes on them. This is because of the superstition that there may be foxes or other evil spirits in the room and the horseplay will drive them away.

In some regions, the new mother-in-law would inspect the marital sheets to ensure that her new daughter-in-law was indeed a virgin, though this tradition has been largely abando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 신부 Bride





## 나의 고향 코코 포레스트 베이

바닷물 속에는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자유로이 헤엄치고 있었는데, 이는 현지인들에게 ‘물뱀’으로 불리는 특이한 종류의 물고기였다.

글 켈리, 회계담당, 알로쿰 중국

동부 근교 코코 숲.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난성 원창의 동쪽 근교에 위치한 이곳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시선이 닿는 곳 끝까지 거대한 코코야자 나무들이 펼쳐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기잡이 선박 위에 꾸며진 식당에서는 갖가지 종류의 맛있는 해산물을 맛볼 수 있으며, 부드러운 모래 해변을 따라 걸으면 알록달록한 조개들을 마음껏 주울 수 있다. 이곳에 있다 보면, 어릴 적 추억이 물밀듯 밀려오곤 한다.

동부 근교 코코 숲은 하이난성의 수도인 하이코우와는 판이하게 다른 곳이다. 코코 숲에서는 시골의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만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환경이 선사해주는 모든 이점들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는 서로 닮은 코코야자 나무들이 구불구불한 길들 옆으로 자연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 숲을 가로질러 바닷길을 따라 걷고 있다면, 어느샌가 아늑하면서도 상쾌한 기분이 된다.

코코야자 나무들 사이사이에는 사랑스런 통나무 오두막들이 숲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본 채 여기저기 서 있다. 이곳에 몸을 담그면, 항상 잔잔한 향기에 휩싸이게 되며 직접 체험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감미로움 뿐만 아니라 자연이 일깨워주는 영감마저도 느낄 수 있게 된다.

길가에는 현지인들이 여러 종류의 코코넛과 함께 코코넛 껍질로 만든 갖가지 수공예품을 팔곤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조개 껍질로 만든 공예품들도 볼 수 있다.



## Coco Forest Bay

이곳의 식당은 그 독특한 건축 방식으로 찾는 이의 눈길을 끈다. 여러 그루의 높은 야자나무 아래에 지어진 식당 안에는 많은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곳곳의 테이블에 놓인 계와 생선 요리들을 보며 나는 입맛을 다시었다. 그 뒤로는 나무로 된 다리가 줄지어 선 여러 채의 독특한 식당들로 발길을 이끌었다.

식당 주인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식당에 조심스레 들어섰다. 바닷물 속에는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자유로이 헤엄치고 있었는데, 이는 현지인들에게 ‘물뱀’으로 불리는 특이한 종류의 물고기였다. 물뱀 이외에도 원뿔 모양의 소라, 계, 가재 등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해산물들이 즐비했다.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웠을 정도였다. 주문을 마친 후 푸짐한 식사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런 맛있는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하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눈앞에 펼쳐진 조화롭고 낭만적인 광경을 즐기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점점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바다를 향해 앉아 우리는 해변 위에 잔잔히 스러지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의 고향 하이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My Hometown Coco Forest Bay

*Apart from this, the restaurant on the fishing boat is full of mouth-watering seafood.*

By Kelly, Accountant Clerk, Management, Aloecorp China

Coco Forest Bay is a lovely spot with beautiful scenery located in the eastern suburb of Wenchang City, Hainan Province. There are vast coconut palms that stretch as far as the eye can see and the soft beach is filled with colorful shells that you can pick up as you like. The Eastern Suburb of Coco Forest Bay is very different from Haikou City, the capital of Hainan. In the suburbs you can fully enjoy the tranquility of country life and appreciate the amenity of these surroundings. Memories of my childhood came flooding back.

Walking through the forests and progressing up the rocky path, a nice cozy and refreshing feeling surrounds you. Log cabins, with their backs against the forests and their faces seaward, are strewn at random among the coconut palms. Being immersed among the palms, you are always accompanied by soft fragrance. This experience enables you to enjoy and appreciate not only the



beauty and sweetness of nature, but also the inspiration we get from nature.

On the roadside, there are many local people selling coconuts - green coconuts and red coconuts - and different kinds of handicraft articles made of natural coconut shell - coconut-shell carving. In addition, there are other kinds of handicraft articles, processed by shell with different shapes.

The restaurant here is so characteristic that you will be attracted by its special building style. It is built under several coconut trees with great height. Inside the restaurant, many people were eating delicious seafood; I smacked my lips over the lobster, crab and fish. Behind it, a wooden bridge leads to rows upon rows of other distinctive restaurants.

Apart from this, the restaurant on the fishing boat is full of mouth-watering seafood. Following the manager of the restaurant, we got into the restaurant floating gently on the sea and watched as the many fish were swimming freely around us. How free! They have no worries - just happiness.

After ordering the seafood, we were waiting for the rich meal. How lucky we were to eat such delicious seafood. Enjoying the cool sea breeze and appreciating the poetic harmonious frame in front of us, we took lots of pictures here. What joy it was to experience the abstractness of the sea in the gathering darkness, where the waves gently lap against the shore as we sat listening to the sound of the waves.

Just like the famous saying - seeing is believing. Welcome to Hainan! Welcome to My Hometown!

Coco Forest Bay



# 홍수재해를 극복한 도전정신

대비책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이웃들과 함께 한것이 돈으로 살수없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글 김수겸 상무, 생산관리부, 알로콰 미국

지난 8월 22일 멕시코만에 상륙한 허리케인 딘(Dean)의 영향으로 6월에 매입하여 8월초부터 식재에 들어갔던 파누코 (Panuco) 농장이 일순간에 수심 약 2미터의 물속으로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은 토양과 풍부한 관개수로 내년 수확을 목표로 한참 신나게 식재를 하였던 약 24만주 (전체 식재계획량의 10%)를 2주에 걸친 25인치의 폭우로 손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그 순간은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전 지역이 침수된 모습, 멀리 보이는 것이 창고 및 사무실 건물  
The entire region under water-the storehouse and office building can be seen in the distance



- ☒ 8월 초 식재 장면  
Planting in early August
- ☒ 8월 초 식재된 알로에  
Planted aloe in early August
- ☒ 농장 진입구 침수 장면- 대문의 윗부분만 보임  
Submerged entrance to the farm - only the top portion of the gate is visible

주변의 농장 100% 와 도시의 1/3이 침수된 상태에서 희망이란 범람한 강의 수위가 빨리 내려가는 것 뿐이었는데, 마침 그 강이 빠져 나가는 바다의 조수가 밀물인지라 그 더딤이란 한 50년 세월을 보낸것 같았습니다.

농장을 덮었던 물이 빠지면서 우선 부족했던 배수로 공사의 시작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지대의 지역을 메꾸어 주고, 이웃 농장주들과 협력하여 연결배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잃은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것입니다. 농장 전체에 모두 식재된 이후 이 재난을 당했다면 얼마나 더 큰 손해였겠습니까? 덕분에 대비책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이웃들과 함께 한것이 돈으로 살수없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식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알로에를 볼 수있음을 자신합니다.

이 재난 가운데 우뚝서서 허리케인이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농장재건에 앞장서 준 멕시코 농장장, 맥시밀리아노 곤잘레스 (Maximiliano Gonzalez)에게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Enterprising Spirit Overcomes Flood Damage

Thanks to this limited catastrophe, we were able to devise abundant countermeasures for the future.

By Joseph Kim, Senior Director, Aloecorp USA

In August, the Panuco Farm was devastated by the impact of Hurricane Dean, which landed in the Gulf of Mexico on the 22nd of that month. The farm’s crop, purchased in June and planted in August, was submerged under water two meters deep.

Equipped with better soil and ample water through irrigation, the planting of the crop had been marked by much enthusiasm and happy anticipation for the expected harvest in 2008. We watched helpless as two weeks of heavy rainfall laid waste to 240,000 aloe plants-some 10% of the total planned crop. What we experienced then was nothing less than the heartbreak of parents who had lost their beloved children.

With all surrounding farms and a third of the town under water, the only remaining recourse was to hope that the flooded river would subside as quickly as possible. Unfortunately, the river emptied into a sea that was at high tide; the lengthy wait that ensued felt like an entire lifetime.

Once the water level began to drop, we started work on reinforcing the drainage system. We filled in low-lying areas and cooperated with the managers of nearby farms in conducting drainage work.

As difficult as it was, we learned much more than we lost through this experience. What greater damage might we have incurred had the flood struck after aloe had been planted throughout the entire farm? Thanks to this limited catastrophe, we were able to devise abundant



침수된 농장을 돌아보는 농장장 맥시밀리아노 (사진 왼쪽)  
Maximiliano Gonzalez surveying the submerged farm (left in the photo)

배수로 확장공사  
Expansion of the drainage system



countermeasures for the future. And even more important, we enjoyed the invaluable experience of sharing our hardship and our hope with our neighbors.

Planting is currently underway at the restored Panuco Farm. We are confident that, come November, we will begin to see the world’s healthiest, most beautiful aloe in our fields.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once again the manager of the Mexico Farm, Maximiliano Gonzalez, for his stalwart leadership in the farm’s reconstruction from the moment the hurricane hit all the way to the present.

현재 식재 중인 모습  
Planting currently underway

등이 보이는 사람이 람 농장장, 맥시밀리아노이고, 정면을 보는 사람은 멕시코 생산담당 상무 어네스토입니다.  
Farm Manager Maximiliano Gonzalez (left) and Director Ernesto Salgado (right) standing beside the white board.





혈액순환,  
알로맥 프로(Aloemeg Pro)로  
종합적인 관리를



당신의 혈액순환은 안녕하십니까?  
알로맥 프로와 함께 건강한 혈액순환을 지켜주세요.

# Aloemeg Pro

글 박정아 기자, 고객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건강의 기본, 혈액!  
혈액순환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생명흐름이다. 따라서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리가 된다. 혈액순환의 문제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노화, 그리고 스트레스로 생기는 혈관의 손상과 혈액이 끈끈하게 점도가 높아져 생기는 혈압의 문제 등 다양하고 장기적인 건강문제가 된다.

지난 10월 새롭게 출시된 알로맥 프로는 혈액순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기존의 알로맥 제품의 기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알로에 소재로는 처음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개별인정을 획득한 제품이다. 개별인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식약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로맥 프로 제품을 통해 혈액순환 장애의 총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제품의 기능인 혈행 개선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 홍보가 가능한 점도 알로맥 프로의 장점이다. 타사 제품의 한 가지 기능을 넘어서 총체적인 혈행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알로맥 프로의 주성분은 알로에 추출물인 N-932와 대나무잎 추출물로 만든 신소재 유니벡스다. 유니베라의 독자적인 천연물 데이터베이스인 파이토로직스로 2000여종의 소재를 분석한 끝에 만들어진 우수한 성분이다. 알로에는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해주고, 대나무잎은 혈관재생을 돕고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 제품을 사용해본 에코네시안들은 제품을 먹기 전보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지는 결과를 경험했다.

직장인들에게 흔한 복부 비만이나 당뇨, 혈압 문제, 또 평소 운동 부족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성인,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손이 시리거나 저린 사람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길 권한다.

건강의 맥 - 혈행 개선으로 한번에 잡자.



*Experience Comprehensive Care for Your Circulation with*

# Aloemeg Pro



By Jeongah Park, CS Team Manager, Univera Korea

Blood is the clearest and most basic indicator of a person’s state of health. And the circulatory system, through which blood flows, is the stream of life that purveys the nutrients and oxygen essential for our body’s survival. Therefore, keeping this stream flowing smoothly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in maintaining health.

Problems related to circulation-such as damage to blood vessels caused by cholesterol build-up, aging, and stress, or rises in blood pressure due to thickening of the blood-are not only numerous but also pose long-term threat to health.

Newly unveiled in October 2007, Aloemeg Pro is a health supplement that provides comprehensive care for the circulatory system. It is an enhanced version of the existing Aloemeg product, and the first aloe product in Korea to receive individual approval from the KFDA. Through this seal of approval, KFDA has officially recogniz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Aloemeg Pro, which offers an overall solution to circulatory problems. Moreover, its conduciveness to active advertising and promotion of its effects, including improved blood flow and lower cholesterol, renders it particularly promising.

*Do you have healthy circulation?  
Keep your blood flowing smooth and strong with Aloemeg Pro.*

# Aloemeg P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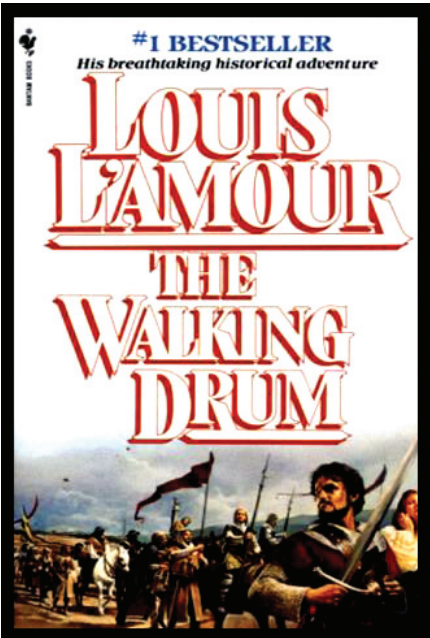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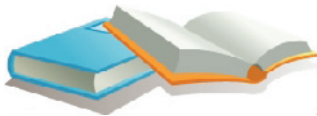
Unlike the products offered by rival companies, which are often limited to a single function, Aloemeg Pro allows for comprehensive care of one’s blood flow?an advantage that will be highly appealing to the majority of consumers.

The main ingredients in Aloemeg Pro are aloe extract N-932 and the new material Unibex, made from the extract of bamboo leaves. The latter, in particular, is an exceptional and innovative ingredient developed through a thorough analysis of over 2,000 materials using PhytoLogix, Univera’s patented natural botanicals database. Aloe controls the level of cholesterol in the blood by preventing its absorption in the small intestines; bamboo leaves aid in the regeneration of blood vessels, as well as serving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functions. ECONETians who tried this product experienced a lowering of cholesterol, neutral fat, and blood pressure.

Aloemeg Pro is especially recommended for adults concerned about the common problems associated with a sedentary lifestyle, including abdominal obesity, diabetes, blood pressure, and high cholesterol, as well as those who suffer from coldness in their extremities due to bad circulation.

*Unlock the spring of health by improving your blood flow.*





## 다시 읽어본 워킹 드럼

서명 워킹 드럼    저자 루이스 라모르

글 케넌 버틀러, 재무팀, 유니베라 미국

워킹 드럼(Walking Drum)은 축축히 비에 젖은 브르타뉴 해변으로부터 강렬히 햇빛이 내리쬐는 중동의 사막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광대한 역사 소설로서, 독특하게 설정된 인물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고대의 일상을 생생히 되살려 내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중세 유럽과 지중해 유역을 헤매며 자신의 아버지의 운명을 찾아나서는 Kerbouchard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Kerbouchard가 고향인 브르타뉴에서 쫓겨나 노예가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작가는 중세의 무슬림 스페인과 라틴 유럽을 탐험하는 주인공의 삶과 모험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중해 동부 어딘가에서 실종된 해적인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주인공의 모험은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야기의 결말에 잘맞아 떨어지는 인도까지의 실크로드를 따라가게 된다.

Kerbouchard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기독교와 이슬람 국가를 막론하고 많은 왕국과 제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함에 따라 대격변기를 지나게 된다. 보스포루스 해협에 위치한 비잔틴 제국은 그들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거점으로 여전히 지중해 동부를 지배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옥스포드와 파리에 처음으로 대학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주인공이 여행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인물들은 역동적으로 시대의 혼동과 희망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그동안 서부 소설 작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던 작가 루이스 라모르는 이 작품을 통해 그의 다재다능함을 증명한 셈이 되었다. 이야기 전반에 걸친 작가의 세심한 묘사와 살아있는 문장은 독자들 눈앞에 등장 인물들을 보다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여러 번 이 책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다시 이 책에 빠져들게 된다. 매우 쉽게 읽히면 서도 흡인력이 대단해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는 “워킹드럼”을 통해 고대의 세상을 완벽히 재현해내고 있다.

주인공이 여행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인물들은 역동적으로 시대의 혼동과 희망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 The Walking Drum

## The Walking Drum Revisited

Book Title The Walking Drum    Author Louis L'Amour

By Kenan Butler, Accounting Clerk, Univera USA

The Walking Drum is a vast historical novel that sweeps you from the rain soaked shores of Brittany to the sun drenched deserts of the Middle East. It is a novel that brings to life the heartbeats of the unique characters and makes the sights and sounds of the daily life of an ancient era real. The protagonist of this fine story is Kerbouchard, a son who seeks the fate of his father throughout medieval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basin.

The story opens with Kerbouchard expelled from his home in Brittany and enslaved. The book chronicles his life and adventures as he explores the medieval world of Muslim Spain and Latin Europe. He searches for his father, a corsair, gone missing somewhere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through the entire book and the journey moves ever eastward to a very fitting conclusion on the Silk Road to India.

The world Kerbouchard experiences are in upheaval as kingdoms and empires rise and fall in both the Christian and Islamic worlds. The Byzantine Empire still holds sway over the Eastern Mediterranean from its capital, Constantinople, on the Bosphorus. Europe is starting to emerge from the Dark Ages and the first universities are founded in Oxford and Paris. The characters that inhabit the world Kerbouchard travels through bring the turmoil and hope of the age to life.

The author, Louis L'Amour has been linked with the genre of western fiction since he started to write, but in this book L'Amour proves that his talent transcends that style of writing. His attention to detail throughout the book and his use of word pictures allows a full enjoyment of the story and helps readers identify with the characters.

I have read this book many times throughout my life and each time I enjoy the book. It is an easy read that draws you in and before you know it, the book will be done. The author has done a fine work in bringing the ancient world to life in the pages of The Walking Drum.

The characters that inhabit the world Kerbouchard travels through bring the turmoil and hope of the age to life.

##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 1 故 靑江 이연호 회장 11주기 추모예배 및 청강대 신축건물 기공식



에코넷의 창업자인 故 靑江 이연호 회장의 11주기 추모식이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이천시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훈 총괄사장과 유가족, 에코넷 임직원 및 청강대 교직원 및 시공업체 관계자 등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창업정신과 업적을 기렸다. 추모행사는 오전 10시부터 묘소헌화와 추모예배 그리고 공작소, 기숙사, 창작공간의 기공식과 테이프 커팅 및 기공시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강대 뮤지컬과 학생들의 추모공연으로 고인의 창업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Commemoration of the 11th Anniversary of Late Chairman Yunho Lee's Passing: Memorial Service and Groundbreaking Ceremony for New Additions to the Campus of the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A memorial ceremony honoring the 11th anniversary of ECONET founder Chairman Yunho Lee's passing was held on November 12 at

the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in Icheon, Gyeonggi-do. The day's events were attended by more than 290 guests, including the current chairman and son of the deceased, Mr. Bill Lee, and his family, the staff and executives of ECONET, the faculty and staff of ChungKang College,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construction company commissioned to erect new buildings for the college campus.

The ceremony, which commemorated late Chairman Lee's founding philosophy and achievements, began at 10:00 a.m. with a visit to the burial site and a memorial service, followed by a groundbreaking and ribbon cutting ceremony for the workshop, dormitories, and creative space. Special performances by the students of ChungKang College helped make the day's events even more meaningful.

##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2 알로맥 프로(Aloemeg Pro) 론칭

유니베라 한국은 지난 11월 신제품 알로맥 프로를 출시했다. 식약청의 개별인정을 받은 기능성인증 제품인 알로맥 프로는 혈행 개선과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을 가진 혈액순환 종합 대책 제품이다. 알로맥 프로의 주요 성분은 유니베라의 파이토로직스를 통해 기능이 검증된 알로에(N-932)와 대나무잎 추출물(유니박스) 등이다. 개별인정을 받은 제품인만큼 제품의 기능인 혈행개선과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을 소비자에게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loemeg Pro Launched

Univera Korea launched its new product, Aloemeg Pro, in November. This dietary supplement, which received product-specific approval from the KFDA, provides a comprehensive solution for circulatory problems by improving blood flow and controlling

cholesterol levels. The main ingredients of Aloemeg Pro are aloe N-932 and bamboo extract Unibex, which have been proven effective by Univera's unique PhytoLogix. Thanks to its product-specific approval, its circulation-enhancing and cholesterol-lowering functions can be directly promoted to consumers, which will help raise the level of information that is communicated to consumers as well.

### 3 유니베라 물류센터 신축 이전



유니베라 제품의 물류 서비스 개선의 주축이 될 유니베라 물류센터가 완공되었다. 물류센터는 충북 진천군에 소재하여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사인 네이처텍에서 신속하게 제품을 납품, 신선도가 높은 상태의 제품이 소비자의 손까지 전달될 것이며 에코넷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이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약 5288.4㎡ 규모로 지어진 신축 물류센터는 외관을 자연스러운 유선형으로 만들어 알로에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뤄 유니베라의 천연물 기업 이미지를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 Relocation of Univera's Distribution Center



Construction on Univera's new distribution

center, designed to improve the company's distribution services, has been completed. The new location in Jincheon, Chungcheongbuk-do, will be able to submit its products speedily to NatureTech, the manufacturing subsidiary situated in the same region, so that the freshness of products may be preserved until they reach the end user. The center will also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ECONET's operations. Comprising one sublevel and two above-ground levels, the new distribution center boasts a total floorspace of 5,288.4㎡. Its exterior forms an organic, streamlined shape that embodies the appearance of aloe and achieves harmony with its natural surroundings. It has been praised as an excellent representation of Univera's image as a natural products provider.

### 4 CCMS 인증실사

유니베라는 지난 11월 14일 CCMS 인증 실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로부터 소비자 불만의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재발방지 체계인 CCMS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받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CCMS 프로그램은 유니베라를 중심으로 네이처텍, 유니젠이 공동으로 도입한 것으로, 에코넷 수직계열화에 맞는 고객만족경영, 품질경영의 기능을 갖는 경영 시스템이다. 3사는 CCMS를 통해 '현재 고객을 웃게 하는 CS力, 미래 기업을 웃게 하는 CS力'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CMS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을 경험하고 있다는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불만요소가 없는 기업, 고객과 내가 모두 행복해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 Due Diligence for CCMS Certification

On November 14, Univera underwent due diligence for its CCMS certification. The proceeding, conducted by an evaluation committee unde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ssesses Univera's CCMS program, a system designed to anticipate customer complaints, resolve them when they



occur, and prevent their reoccurrence.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will be announced within the month of December. The CCMS program is led by Univera and jointly adopted by NatureTech and Unigen; tailored to ECONET's vertical integration, it serves as a management system ensuring customer satisfaction and quality enhancement. The three companies-united under the slogan, "CS Power: Making Customers Smile in the Present and Companies Smile in the Future"-are actively working to boost customer satisfaction. The staff and executives, who attest to experiencing more effective operation through CCMS, will continue their pursuit to create a company that provides no cause for complaints, a company that achieves both the customer's happiness and its own.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5 유니젠 워크샵 개최



2007년 유니젠 워크샵이 지난 10월 19일과 20일,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무주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의 첫번째 시간에는 김동식 사장의 발표로 지난 10월에 열렸던 ECONET Global CEO Meeting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공유 및 질문과 대답의 시간이 있었고, 두번째 시간에는 200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의 과정을 거쳐 부문별로 정리된 내용의 발표 그리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었다.

다음날에는 덕유산 등반이 있었는데, 덕유산 향적봉에 첫눈이 내린 날 등반을 하게 되어 첫눈을 동료들과

함께 맞았다는 기쁨과 내년에는 보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행복한 예감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내년도 우리의 목표에 대해 모두가 공유하고, 전 직원의 결속력과 목표에 대한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Unigen Workshop



Over October 19 and 20, the 2007 Unigen Workshop was held at the Muju Resort, located in Muju, Jeollabuk-do. The workshop's opening session featured a presentation by company president Dong-sik Kim, who shared information on relevant portions of the October ECONET Global CEO Meeting and conducted a Q&A session. The second session, on business plans for 2008, was attended by the entire staff of Unigen. After an enthusiastic debate, the summary contents of each section was presented and opened to Q&A.

On the following day, the workshop participants enjoyed a climb up Deokyu Mountain. The climb happily coincided with the first snowfall on Hyangjeok Peak; the climbers greeted the season's first snow with their coworkers and ended the day's agenda with an anticipation of good things to come.

This year's workshop provided a valuable opportunity for everyone to share their goals for the coming year, deepen their sense of solidarity, and strengthen their resolution for future endeavors.

### 6 채용 박람회 참가



유니젠 한국은 지난 10월 26~27일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인재 확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수많은 구직자들로 성황을 이뤘던 이 박람회에서 유니젠 한국은 독창적인 기업모델과 비전을 제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현장에서의 홍보, 지원서 접수, 면접을 통해 수많은 우수 구직자들과 만남으로써, 온라인에만 의존했던 이전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채용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산업자원부와 Kotra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유니젠은 에코넷 기업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 Job Fair



Unigen, which has been taking an active stance toward procuring superior talent, took part in the job fair sponsored by the MOCIE and hosted by KOTRA at the COEX Convention Hall from October 26 through 27. At the fair, Unigen promoted the company, received applications for jobs, and even conducted on-site interviews.

Over 100 companies participated on- or offline in the job fair, which was thronged with countless job seekers. The company's on-site presence brought in applications from many talented individuals, which effectively redressed the limitations of online-only recruitment; it also allowed for more effective and immediate assessing of applicants.

Participation in the job fair was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ECONET Korea Holdings. A large number of job seekers expressed fervent interest in Unigen Korea and ECONET, in clear testament to the success of our endeavors to attract outstanding talent.

##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 7 효과적 시간 활용을 위한 워크샵 개최

매니저 이상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 시간 활용 워크샵이 10월 22일 월요일, 셰라톤 타코마 호텔에서 열렸다.

프랭클린 코비에서 나온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강사 제임스 캐트카트가 이날 하루 워크샵을 주도했다. 이 워크샵은 에코넷 미국의 매니저들에게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아웃룩과 이미 그 효율성이 입증된 바 있는 코비 시간 활용 원칙을 함께 이용해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워크샵에 참가한 총 33명의 직원들은 입을 모아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Time Management Training Workshop Held on Monday, October 23rd.

A time management training was held for managers and above on Monday, October 22, at the Sheraton Tacoma Hotel.

James Cathcart, a dynamic and entertaining trainer from Franklin Covey, conducted the workshop for the day. The focus of the instruction



was to teach the managers of ECONET USA how to maximize their time using Microsoft Outlook in conjunction with the proven and effective Covey time management principles. Thirty-three employees attended the workshop and unanimously agreed that it was very helpful training and they are looking forward to more learning opportunities like this.

##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8 에이지레스엑스트라 다시 돌아오다

유니베라 미국의 판매 마케팅 부서는 유니베라 어소시에이트들을 상대로 에이지레스엑스트라를 다시 판매하는 것이 좋을 지를 묻는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



했다. 3,000 명이 넘는 어소시에이트들이 참가했는데 75%가 에이지레스엑스트라를 다시 들어오는 데 찬성했다. 에이지레스엑스트라는 한국의 네이처텍에서 생산되며 30 온스의 농축액과 3.3 온스의 미니가 지난 11월부터 판매되고 있다. 한편 엑스피리아 30 온스 농축액은

좀더 강하고 신맛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아가비 과즙과 스테비아, 그리고 사과와 백포도 농축액으로 감미가 된 엑스트라의 한가지 종류로 남아 계속 시판될 예정이다.

### Return of AgelessXtra™.

Univera USA Sales and Marketing conducted an online survey with Univera Associates regarding the return of AgelessXtra™. Over 3,000 Associates responded to the survey with 75% of respondents wanting AgelessXtra back in the Company product line. AgelessXtra is being produced at NatureTech in Korea and the 30 oz Concentrate and 3.3 oz MINIs will be available for sale in November.

Xperia™ 30 oz Concentrate will continue in the Company product line, positioned as the “sucralose -free” version of AgelessXtra.

### 9 유니베라 미국 신임 사장에 리건 마일즈

이병훈 총괄사장의 최근 레이시 본사 방문 기간 중 유니젠 미국의 리건 마일즈 사장이 유니베라 미국의 신임 사장으로 임명 받았다. 11월 9일 금요일에 있었던 공식 발표에서 이병훈 총괄사장은 책임자를 찾기 위한 그간의 포괄적인 노력 끝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이미 에코넷 계열사 내에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간 유니베라 미국과 에코넷 미국 홀딩스의 사장을 겸임하고 있던 스튜어트 오킬트리 사장은 이제 홀딩스의 사장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니젠의 신임 사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다.

### Regan Miles, new CEO of Univera USA

Regan Miles, CEO of Unigen USA, was appointed the new CEO of Univera USA during Chairman Bill Lee's recent visit to the Lacey headquarters. The announcement was made Friday, November 9th. Chairman Lee explained that after an extensive search for the right candidate, the company realized the best fit was already in our ECONET family of companies. Stuart Ochiltree, who was serving as CEO of both Univera USA and ECONET USA Holdings, will now be able to work as a full time CEO of ECONET USA Holdings. The search for the new CEO of Unigen USA has begun.

##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 10 치 박사, 알로에 과학협회 이사회 과학기술 회장으로 선출되다

연 2회 개최되는 국제 알로에 과학협회 이사회가 지난 9월 텍사스, 얼빙의 옴니 호텔에서 열렸다. 하룻동안 열렸던 이 회의에서 유니젠 미국의 과학 최고 책임자인 치 지아 박사가 신임 과학기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자리는 최근까지 필 하비 박사가 맡던 자리이다. 신임 회장 치 박사가 알로에 산업에 엄밀한 과학

학과 보다 나은 개발을 가져올 것이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 Dr. Qi was elected as Chairm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Aloe Science Council

The semi-annual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Board Meeting was held in September at the Omni Hotel in Irving, Texas. At the one day meeting, Dr. Qi Jia, CSO of Unigen USA, was elected as the new Chairman of Science and Technology. Dr. Jia is stepping into this role most recently held by Dr. Phil Harvey. He is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to bring the rigour of science and developments in technology to the aloe industry.

### 11 과학적 성과 공유의 장

6개월마다 열리는 제 11차 국제과학회의가 이번에는 11월 1, 2, 5일에 걸쳐 레이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에코넷 계열사 중 약 7개 회사에서 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본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많은 참석자와 다양한 의제를 보여주고 있다. 납품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 감사, 세포 분석, 파이프라인 제품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인 서로간에 정보 공유를 넘어 참석자들은 식사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는 회의가 되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2008년 5월에 열리게 될 차기 회의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크다.

### Sharing in Scientific Achievement

The 11th Bi-Annual Global Science Summit was held near the Lacey facilities on the 1, 2 and 5th of November. The attendance and agenda continue to grow with over 50 individuals representing seven companies from the Econet family of companies attending. Presentations covered such diverse topics as Quality Control Vendor Audits, cell based assays, pipeline products, and regulation issues. Besides the sharing of knowledge, attendees also had the

### 12 유니젠 연구소 확장

그 동안 유니젠 미국의 가족들을 적잖이 괴롭혔던 공장 소음과 먼지에 작별을 고했고 동시에 새로이 영입한 핵자기 공명(NMR) 기계가 들어서게 될 새 연구소 완공으로 인해 유니젠 미국가족들은 매우 들떠있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이 신 연구소는 식물 도서관내의 다양한 컨텐츠와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니젠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 연구소 완공으로 유니젠의 천연 제품 연구 뿐 아니라 에코넷 전체가 전사적으로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핵자기 공명 기기 구입은 치지아 박사의 제의와 유니젠의 CEO이자 이사회 멤버인 리건 마일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기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화학자 핑 지아오 박사가 기기 설치 준비 작업의 매단계에 손수 참가하였다.

### Expansion of Unigen's Lab

Unigen USA employee's are excited about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of a new lab because it means the end of a lot of noise and dust and it is the home of the newly acquired Nulcear Magnetic Resounance (NMR) Machine.

This recent addition is a top of the line, complete system that will greatly increase Unigen's capabilities in understanding the content and structures in its plant library. Not only will this strengthen Unigen's natural product research but we expect it to be of benefit to the entire Econet. This machine was purchased based on a proposal by Dr. Qi Jia and with the support of Regan Miles, CEO of Unigen and the Board of Directors. Dr. Ping Jiao is the chemist responsible for running the NMR and has been involved in every step of the preparations for the installation of the NMR.



##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 13 알로콥 멕시코 대체 연료 도입으로 한달에 만 7천불 가량 절약 효과 거두다

지난 9월부터 알로콥 멕시코 생산부서에서는 기존의 디젤류를 대신한 대체연료를 도입하여 전 공정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연소율로 인하여 약 36%의 연료절감 효과를 가져왔는데, 금액으로 합산하면 한달동안 약 \$17,000의 절약을 한 셈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알로콥 멕시코 직원들의 노력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앞으로 추가 원가절감을 위해 농장과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곧 좋은 소식이 도래하리라 의심치 않는다.



대체연료를 저장하는 연료탱크. (46,000 liters)  
The tank with alternative fuel (46,000 liters)

### Aloecorp Mexico Saved About \$17,000 in One Month Using Alternative Fuel

Starting in September, the Aloecorp Mexico production team started using an alternative fuel instead of diesel. Making this change throughout the whole processing procedure brought about a 36% saving on fuel thanks to low prices and high fuel efficiency. If we convert this saving into money, we saved about \$17,000 in one month. Aloecorp Mexico employees' cost-saving endeavor is finally becoming a reality. The farm and manufacturing teams continue with new projects for additional savings in cost. Without a doubt, they will also have good news to report soon.

### 14 알로콥과 힐탑 가든의 피크닉

알로콥과 힐탑 가든의 피크닉이 9월 8일 텍사스 라이포드에서 열렸다. 피크닉 장소인 힐탑 가든은 순식간



에 서커스 카니발장으로 변신했고, 알로콥과 힐탑 가든의 직원들과 가족들은 키디 라이드, 미끄럼, 문 점프는 물론 클라운 쇼와 다양한 게임도 즐기고, 게다가 상품과 음식까지 제공되어 더할 수 없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직원들은 팀을 이뤄 발리볼 경기를 펼쳤는데, 몇 년 전 부서별로 진행됐던 연례 발리볼 대회가 부활된 듯 했다. 차이라면 이번에는 직원들의 가족들도 팀에 합류할 수가 있었다. 이날의 경기에서 트로피는 결국 생산 관리팀의 차지가 되었으며 서로에게 물풍선 던지기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모두가 그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었던 날이었다.

### The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Picnic



The Aloecorp - Hilltop Gardens Picnic in Lyford, Texas, was held on September 8, 2007. The Hilltop Gardens were transformed into a Circus-Carnival playground.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enjoyed kiddy rides, inflatable wet slide, moon jump, clown show, games, prizes, and food. Employees formed volleyball teams and reinstated the annual volleyball tournament that had been played years back among departments; except now, the teams were allowed to include their family members as teammates. The Production Team ended up winning the trophy!

We wrapped up the day with a water balloon battle everyone against everyone. It was definitely a refreshing ending!

### 15 추수감사 오찬



텍사스 라이포드의 알로콥과 힐탑가든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15일 추수감사 오찬을 가졌다. 힐탑가든의 창고 건물은 아름다운 가을빛으로 장식되었는데, 멋진 오찬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 로버트 에스피노자, 마크, 베스 사이먼은 모두를 위해 칠면조의 가슴살, 몸통, 햄 그리고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를 준비했다. 조셉 김은 짧은 인사말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해 주신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마리솔 에르난데즈는 모두를 위해 추수감사 기도를 올렸다.

### Thanksgiving Luncheon

Aloecorp and Hilltop Garden employees in Lyford, TX had their Thanksgiving Luncheon on 11/15/07. The Hilltop Gardens warehouse was dressed in beautiful autumn colors and decorations and served as the stage for the great feast! Robert Espinoza, Mark and Beth Simon prepared turkey breasts, drums and ham along with a variety of side dishes and desserts for everyone to enjoy. Joseph Kim gave a short speech giving thanks to all employees for their hard work and Marisol Hernandez offered a thanksgiving prayer.



*ECONET Subsidiary News*



신입사원 / New Hire



▲ 브랜던 코넬리우스, 발견 및 검증 연구원, 유니젠 미국  
Brandon Corneliusen, Discovery & Screening Research Associate, Unigen USA



▲ 클리프 리, 정보기술 상무, 유니베라 미국  
Clifford Lee, Vice Presid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Univera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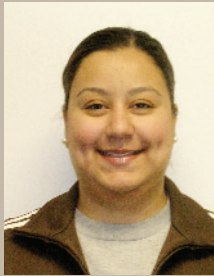
▲ 마틴 도미니게즈, 고객 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Martin Dominguez,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Univera USA



▲ 미셸 다스트럽, 고객 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Michelle Dastrup,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Univera USA



▲ 사만다 호그, 캐나다 세일즈 마케팅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  
Samantha Hogue, Canadian Sales & Marketing Coordinator, Univera USA



▲ 아렐리 발데즈, QA Analyst I, 알로콧 멕시코  
Yareli M. Valdez, QA Analyst I, Aloecorp Mexico



▲ 빈센테 차베즈, Farm Worker 농장, 힐탑가든  
Vicente R. Chavez, Farm Worker, Hilltop Gardens



▲ 안헬 미렐레스, Landscape Gardener, 힐탑가든  
Angel Mireles, Landscape Gardener, Hilltop Gardens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Note for those who have not submitted their photos.

► Univera USA

- 랄프 비츠, 글로벌 오퍼레이션 책임자, 유니베라 미국  
Ralph Bietz, Chief Global Operations Officer, Univera USA

- 시블 가디피, 고객관리 사원, 유니베라 미국  
Syble Gardipe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Univera USA

► Aloecorp USA

- 파멜라 킨셀라, 회계 사원, 알로콧 미국  
Pamela Kinsella, Staff Accountant, Aloecorp USA

- 폴라 허드슨, 임원 보조, 알로콧 미국  
Paula Hudson,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Aloecorp USA

승진 & 부서이동 / Promotions & Transfers



◀ 리건 마일즈, 사장, 유니젠 미국 ⇨ 리건 마일즈, 사장, 유니베라 미국

Regan Miles, CEO, Unigen USA ⇨ Regan Miles, CEO, Univera USA



◀ 수잔 헤이거, 상무, 커뮤니케이션 및 Government Affairs, 유니베라 미국 ⇨ 상무, 커뮤니케이션 및 전략 사업 개발, 웰니스, 유니베라 미국

Susan Haeger, VP of Corporate Communications & Governmental Affairs, Univera USA ⇨ VP of Corporate Communications & Strategic Business Development, Wellness, Univera USA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네이처텍 / Naturetech



◆ 축하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생산기술팀 김정희 대리의 아들 김민석군이 첫돌을 맞았습니다. 민석군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On October 27, Minseok Kim, the beautiful son of Assistant Manger Jeonghee Kim (Production Technology Team), celebrated his first birthday. Best birthday wishes!

첫돌을 맞았습니다. 박우준군이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3. 지난 11월 30일 영업기획팀 유병용 대리의 딸 유현서양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현서양의 첫생일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1. On September 1, Hyunseo Cho, the lovely daughter of Staff Member Eunchull Cho Eunchull Cho (Sales Planning Team), celebrated her first birthday.

2. On September 8, Ujun Park, the beautiful son of Assistant Manager Jungho Park (Sales Planning Team), celebrated his first birthday.

3. On November 30, Hyunseo Yoo, the lovely daughter of Assistant Manager Byungyong Yoo (Sales Planning Team), celebrated her first birthday.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영업본부 중부영업팀 조은석 대리가 아름다운 피양세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조은석 대리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축하합니다.



1. 지난 9월 1일 영업기획팀 조은철 사원의 딸 조현서양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현서양의 첫돌을 축하합니다.

2. 지난 9월 8일 영업기획팀 박정호 대리의 아들 박우준군이

지난 10월호 부서이동 및 승진 안내에서 잘못 기재된 영문직책 기사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We'd like to make the following corrections to the article on Promotions and Transfers of the October edition as below.

► 승진 기사 정정 건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메레디스 버키, 트레이닝 상임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 필드 트레이닝 상무보 (10월호)
- (Before correction) Meredith Berkich, Senior Manager of Training, Univera USA ⇨ Managing Director of Field Training
- (After correction) Meredith Berkich, Senior Manager of Training, Univera USA ⇨ Director of Field Training

► 부서이동 기사 정정 건

एको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 토드 शुम्स्की, 회계&재정 상무보, 유니베라 미국 ⇨ 재정 분석 상무보, 에코넷 미국 홀딩스 (10월호)
- (Before correction) Todd Shumsky, Director of Accounting & Finance, Univera USA ⇨ Managing Director of Financial Analysis, ECONET USA Holdings
- (After correction) Todd Shumsky, Director of Accounting & Finance, Univera USA ⇨ Director of Financial Analysis, ECONET USA Holdings



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Best wishes for Assistant Manager Eunsuck Joe (Sales Division, Joongbu Sales Team) on his recent wedding, which took place on November 11.

◆ 자녀 출산을 축하합니다.

- 1. 지난 10월 24일 CIO실 경영정보팀 손호륜 대리가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 2. 지난 11월 12일 영업본부 서울영업팀 이동영 대리가 건강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 1.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Horyoon Son (IT Shared Information Team) on the birth of his lovely daughter on October 24.
- 2.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Dongyoung Lee (Seoul Sales Team) on the birth of his beautiful son, born on November 12.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자녀 출산을 축하합니다.



지난 9월 18일 생리활성검정팀 김충섭 연구원의 딸, 김재희양이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나왔습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o Researcher Chungseop Kim (Bioassay & Discovery Team) on the birth of his lovely daughter, Jaehee Kim, born on September 18.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4일 천연물연구팀 김종한 연구원의 결혼식이 대전 그레이스 웨딩홀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Congratulations (Weddings)



On November 4, the wedding of Researcher Jonghan Kim (Natural Products Chemistry Team) took place at Grace Wedding Halls in Daejeon. Congratulations on his wedding.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자녀 출산을 축하합니다.

2007년 9월 9일 밤 11시 12분에 타미카 하워드 (고객관리사원, 유니베라 미국) 가 건강한 사내 아기를 낳았습니다. 로사리오 리 파라스콘돌라는 5파운드 7온스에 17인치 반의 크기로,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amika Howard (Customer Care, Univera USA) gave birth to a healthy baby boy at 11:12 p.m. on September 9, 2007. Rosario Lee Parascondola was born weighing 5 lbs., 7 oz., and was 17 1/2 inch long with a full head of hair.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 자녀 출산을 축하합니다.

로버트 에스피노자 (품질 관리 매니저, 알로콥 미국) 가 2007년 9월 9일 아침 8시 42분에 잘생긴 사내아기의 자랑스런 아빠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누나 마라와 함께 찍힌 아기 디에고 알레잔드로 에스피노자의 모습입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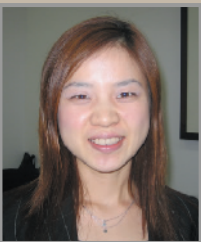
Congratulations! Robert Espinoza (QA Manager, Aloecorp USA) became the proud father of a beautiful baby boy at 8:42 a.m. on September 25, 2007. This picture is of Diego Alejandro Espinoza with his big sister, Mara.



생일자 소식 12 ~ 2008. 01

Birthday in December & January 2008

Happy Birthday



◆ 1/2 안현진  
Hyunjin A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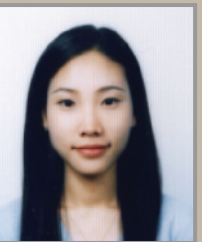
◆ 1/13 윤석훈  
Seokhoon Yoon



◆ 1/18 김미자  
Mija Kim



◆ 1/21 김정표  
Jungpyo Kim



◆ 1/21 이재은  
Jaeun Lee



◆ 1/27 이재은  
James J. E. Lee



◆ 12/5 금경덕  
Kyongduk Kum



◆ 12/6 이성호  
Sungho Lee



◆ 12/10 김한철  
Hanchaol Kim



◆ 12/17 정찬대  
Chandaee Jung



◆ 12/20 김경섭  
Kungseob Kim



◆ 12/21 신진숙  
Jinsuk Shin



◆ 12/21 정명균  
Muunggyun Jung



◆ 12/23 김순예  
Soonyea Kim



◆ 2/23 김복순  
Buksoon Kim



◆ 12/24 김태갑  
Taecap Kim



Happy Birthday



◆ 12/27 박용하  
Yongha Park



◆ 12/28 박종민  
Jongmin Park



◆ 12/29 최시옥  
Siok Choi



◆ 12/30 신복현  
Bokhyu Shin



◆ 1/2 김정임  
Jungim Kim



◆ 1/6 김규홍  
Kyuhong Kim



◆ 1/8 김월수  
Wolsoo Kim



◆ 1/7 박정숙  
Jongsuk Park



◆ 1/9 방기만  
Gimang Bang



◆ 1/14 신중현  
Junghyu Shin



◆ 12/3 장용희  
Yonghee Jang



◆ 12/9 이창수  
Changsoo Lee



◆ 12/10 석미경  
Mikyung Seok



◆ 12/18 김동식  
Don Kim



◆ 12/23 조준용  
Junyong Cho



◆ 12/23 이주연  
Jooyoun Yi



◆ 12/25 백승우  
Seungwoo Baek



◆ 12/26 최진영  
Jinyoung Choi



◆ 1/7 황선희  
Sunhee Hwang



◆ 1/14 김영환  
Younghwan Kim



◆ 1/18 박석신  
Seokshin Park



◆ 1/28 임자원  
Jiwon 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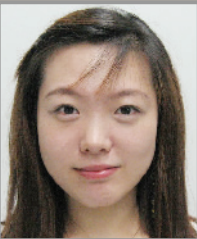
◆ 1/31 김태신  
Taesin Kim



◆ 12/22 우성식  
Sickwoo Sung



◆ 12/31 구자익  
Jaik Koo



◆ 12/7 어윤정  
Younjeong Eo



◆ 12/25 최재영  
Jaeyoung Choi



◆ 1/8 송만섭  
Manseob Song



◆ 12/29 김민정  
Minju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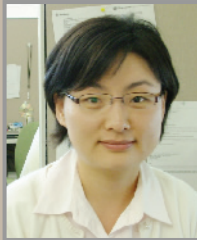
◆ 1/5 커티스 브라이언  
Curtis Bryan



◆ 1/14 론 님  
Ron Gnyp



◆ 1/15 팀 우드  
Tim Wood



◆ 1/28 김미선  
Misun Kim



◆ 1/31 앤 칼리크  
Anne Kalich



◆ 12/11  
로드니 스톰스  
Rodney Storms



◆ 12/26  
줄리 트셴-크랭크  
Julie Tseng-Crank



◆ 12/26  
메스핀 이맘  
Mesfin Yimam



◆ 12/31  
킴 폴만  
Kim Pohlman



◆ 12/31  
샌딕 낸디  
Sandip Nandy



◆ 1/27  
지푸 자오  
Jifu Zhao



◆ 12/4  
니콜라스 포맨  
Nicholas Foreman



◆ 12/11  
제니퍼 라이트  
Jennifer Wright



◆ 12/15  
제이슨 데이비스  
Jayson Davis



# Happy Birthday



◆ 12/15  
캐티 그룰키  
Katy Grulke



◆ 12/16  
안젤라 덴마이어  
Angela Danmeyer



◆ 12/22  
키타 터렐  
Quita Terrell



◆ 12/23  
라리사 팰빅  
Larisa Pavlick



◆ 12/30  
리아 마틴  
Lea Martin



◆ 12/31  
샌드라 스콜로브스키  
Sandra Sokolowski



◆ 12/2  
헤나로 에레라  
Genaro Herrera



◆ 12/3  
화나 마요르가  
Juana Mayorga



◆ 12/5  
카를로스 브라운  
Carlos Brown



◆ 12/8  
콘셉시온 카마초  
Ma. Concepcion Camacho



◆ 12/10  
한 코르도바  
Juan Cordova



◆ 12/13  
알프레도 마타  
Alfredo Mata



◆ 12/31  
스테이지 토마스  
Stacy Thomas



◆ 1/1  
니콜 디아즈  
Nicole Diaz



◆ 1/5  
레이븐 캠프벨  
Raven Campbell



◆ 1/6  
보니 앤더슨  
Bonnie Anderson



◆ 1/7  
샬린 켈럼  
Charleen Kellum



◆ 1/7  
사테 사카리아  
Sete Sakaria



◆ 12/20  
로헬리오 모로네스  
Rogelio Morones



◆ 12/22  
레오넬 산체스  
Leonel Sanchez



◆ 12/24  
헤수스 아세베도  
Ma. Jesus Acevedo



알로콥 중국  
Aloecorp China



◆ 11/17 예 메이  
Ye Mei



◆ 1/11 왕 싱  
Wang Xin



◆ 1/14  
데이브 포한  
Dave Forhan



◆ 1/15  
세드릭 스몰  
Cedric Small



◆ 1/16  
엘레나 잘렉  
Elena Jalek



◆ 1/17  
마샤 존슨  
Martha Johnson



◆ 1/18  
멜리사 스토리  
Melissa Story



◆ 1/18  
샌드라 닐  
Sandra Neal



◆ 1/26 한상준  
Sangjoon Han



알로콥 멕시코  
Aloecorp Mexico



◆ 11/5  
이사벨 리카르도  
Isabel Ricardo

기타 - 사진 제출 안하신 분들의 생일자 명단입니다.  
Misc. - The list of those who had a birthday but did not submit their pictures

▶ Univera Korea  
• 1/3 이가은 Gaeun Lee

▶ Aloecorp USA (Texas)  
• 12/3 제프 베리 Jeff Barrie

▶ ECONET USA Holdings  
• 12/8 손병일 Byung Sohn  
• 1/23 밥 풀턴 Barb Fulton

# Happy Birthday



사랑하는 애완동물 또는 식물과 함께 찍은 사진 콘테스트 당첨자 소개

안녕하세요  
2007년 한해동안 에코넷웨이 사진 콘테스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쁜 추억이 담긴 소중한 사진들을 저희 에코네시안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1위 고라는 나의 가족

사진속 고양이는 지금 저와 무려 2005년 5월 5일부터 저랑 쭉  
욱~ 같이 살고있는 고라랍니다. 저의 돌도없는 가족이자 동생  
이죠. 저희 고라 정보도 살짝 알려드립니다.

- 종 : 터키쉬 앙고라, 앙고라라서 이름이 '고라' 예여...
- 성별 : 여아
- 출생 : 2004년 11월 8일 (곧 3세가 되네여)
- 특기 : 문앞에서 언니 기다리기, 잠자기, 아랫목 찾기
- 취미 : 레이저 포인트 쫓아가기, 목욕하기

응모하신 분 : 방지영 사원, 품질혁신팀, 네이처텍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First Prize “Gora Is My Family”

The cat pictured in the photograph is Gora, who has been  
my constant companion since May 5, 2005. She is my own  
little sister and an indispensable member of my family.  
A brief profile follows.

- Breed: Turkish Angora (That’s where the name  
“Gora” comes from!)
- Sex: Female
- Born: November 8, 2004  
(She’ll be three years old this November.)
- Special Talents: Waiting for her big sister by the door,  
sleeping, finding warm corners to lie in
- Hobbies: Chasing after the laser pointer, taking baths

Submitted by : Jiyoung Bang, Quality Innovation  
Team, Naturetech  
(A gift certificate worth \$150 will be awarded.)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Pictures Taken with Your Beloved Pets or Plants

Greetings!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in ECONET WAY photo contests throughout 2007.  
We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send us pictures of your treasured moments in the New Year.



2위 가을의 재미

아름다운 워싱턴의 가을 한날 우리집 뒷마당에서 나의 두 애완동물과  
찍은 사진입니다. 작은 쪽이 로스코이고 건장한 쪽이 애나-킨 이랍  
니다.

응모하신 분 : 브리지 헨닝스, 유통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Autumn Fun

This is a beautiful Washington autumn day in my backyard,  
with my two dogs. Roscoe is the little one and Ana-Kin is the  
husky guy on the right.

Submitted by :  
Breezee Hennings, Distribution Coordinator, Univera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will be awarded.)



3위 미미가 좋아하는 것 - 바람에 머리 날리기

미미(2살 반 시츄)는 우리가 운전하는 동안 코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코가 납작해서 가끔 너무 많은 공기가 한꺼번에  
들어가 힘든지 재채기를 하지만 또 곧 다시 창문으로 올라선답니다.

응모하신 분 : 이세현, 임원 보조 매니저, 에코넷 미국 홀딩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Third Prize

Mimi’s favorite thing - blowing her hair in wind

Mimi (2 and half year old Shih Tzu) loves sticking her nose  
out when we drive. With her snub nose, sometimes it’s too  
much air to take in and she sneezes. But she keeps going back  
to the window.

Submitted by :  
Sean Lee, Executive Admin Manager, ECOENT USA Holdings  
(A gift certificate worth \$50 will be awarded.)





Just Missed Award 1 Angelita and Sammy

Sammy Davis became a member of my family at the 2005 Puyallup Fair. He was in a large litter and we asked if we could have one. We almost didn't pick Sammy because we thought he was a girl and named him Samantha. Sammy has become such a member of my household he has a monthly budget just like anyone else in our house.

Submitted by : Angelita Rabang, Compliance Specialist, ECONET USA Holdings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1 안젤리타와 새미

새미 데이비스는 2005년 퓨알럽 축제를 통해 우리가족의 일 부가 되었습니다. 여러 고양이 새끼들 중에 한마리를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봤었지요. 우리는 새미가 암컷 고양이인 줄 알고 거의 고르지 않을 뻔 했었는데 결국 골랐고 그 후 사만 다 (애칭 : 새미) 라 이름지었습니다. 새미는 완전히 우리식 구의 하나가 되어 다른 식구들이 그렇듯 월 지출액도 정해져 있답니다.

응모하신 분 : 안젤리타 레이방, 컴플라이언스 스페셜리스트, 에코넷 미국 홀딩스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차상2 여름의 재미

제이미슨이 모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재대로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모하신 분 : 데이브 내쉬, 캐나다 세일즈 상무,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2 Summer fun

Jameson shows everyone how it's done

Submitted by : Dave Nash, Director of Sales, Canada, Univera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3 너 진짜 그거 만질 수 있어 ?

동물원에서의 키에라. 키에라는 손을 집어 넣는 걸 무척 무서워 했습니다.그날의 새로운 말은 “이유... 징그러워 엄마 “였 지요.단테는 물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응모하신 분 : 에리카 클레멘스, 임원보조,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3

Are you sure that you can touch it?

Kiara's day at the zoo. She was so afraid to stick her hand in there. Her new word that day became EWW GROSS MOM. Dante, of course, was not afraid. My daughter, Kiara, 2 and my son, Dante, 4

Submitted by : Erica Clemmens, Executive Admin Assistant, Univera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Photo Contest



아차상4 아름다운 가을 색

이 나무들은 우리집 부엌 창문 바로 밖에 있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 아닌가요 ?

응모하신 분 : 에리카 클레멘스, 임원보조,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4

The beautiful colors of Fall

These trees are right outside my kitchen window. Is that an amazing view or what?

Submitted by : Erica Clemmens, Executive Admin Assistant, Univera USA  
(A gift set of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지난 호 퀴즈정답 (1. 에이지 디파잉 인텐시브 에센스 2. 에이지 디파잉 아이 에센스 3. 에이지 디파잉 리페어 크림)

- ▶ 지난해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에이지 디파잉 아이 에센스를 드립니다.)
  - 황선희, 교육팀, 유니베라 한국      • 제니 헌츠맨, 회계사원, 유니베라 미국      • 김석원, 웰니스 사업팀, 유니베라 미국
- ▶ 12월호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90page에 있습니다.
- ▶ 2008년 2월호에는 각 나라의 고유명절이나 행사 때 찍은 의미있는 사진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리스마스, 설날, 2007년 마지막날, 2008년 1월 1일 등
  - 1등: 150,000원 상품권(1명)      • 2등: 100,000원 상품권(1명)      • 3등: 50,000원 상품권(1명)

( )의 주성분은 알로에 추출물인 N-932와 대나무잎 추출물로 만든 신소재 유니백스다. 유니베라의 독자적인 천연물 데이터베이스인 파이토로직스로 2000여종의 소재를 분석한 끝에 만들어낸 우수한 성분이다. 알로에는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해주고, 대나무잎은 혈관재생을 돕고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한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또는 96Page 각사 기자들 이메일
  - 응모하신분들중 2분을 추첨하여 알로백 프로를 드립니다.

### December Quiz and Winners of the October Quiz

*Answers to the October quiz ( Age Defying Intensive Essence, Age Defying Eye Essence, Age Defying Repair Cream )*

- ▶ **Winners of the October Quiz** (The winning prize is the Age Defying Eye Essence.)
  - SH Hwang, Education Team, Univera Korea
  - Jenny Huntsman, Accounting Clerk , Univera USA
  - Greg Kim, Wellness Business Unit, Univera USA
- ▶ **Winners of the photo contest for our December issue** are announced on page 90.
- ▶ **For the February 2008 issue**, please submit memorable photos taken during your national holidays or events.  
E.g. Christmas Day, Chinese New Year' s Day, New Year' s Eve 2008, New Year' s Day 2008, etc...
  - First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50 (1 person)
  - Secon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00 (1 person)
  - Thir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50 (1 person)

*The main ingredients in ( ) are aloe extract N-932 and the new material Unibex, made from the extract of bamboo leaves. The latter, in particular, is an exceptional and innovative ingredient developed through a thorough analysis of over 2,000 materials using PhytoLogix, Univera's patented natural botanicals database. Aloe controls the level of cholesterol in the blood by preventing its absorption in the small intestines; bamboo leaves aid in the regeneration of blood vessels, as well as serving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functions.*

- Please send answers to [kaoh@univera.com](mailto:kaoh@univera.com) or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listed on page 96.
- FAmong the entries, two will be randomly selected to receive Aloemeg Pro.

*ECONET Way*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더욱 사랑 받는 '에코넷웨이'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mailto:kaoh@univera.com) 또는 각사 기자들 이메일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 혹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예코넷웨이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소재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예코넷웨이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To ensure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ECONET Way, we solicit the valued opinions of our readers.  
⇒ email addresses of reporters from each company

1. Which part of this issue did you find the most satisfactory, or the most in need of amendment?
2. If you have any stories or topics you would like to share through ECONET Way, submit them freely to our editorial staff.
3. Let us know if there were any typographical errors in ECONET Way.



##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오경아 대리, 비서팀,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Secretary Team

#### 네이처텍 / Naturetech

최순미 대리, 경영기획팀,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Assistant Manager, Managemnet Planning Team

전영숙, 생산기술팀, et2388@namyangglobal.com  
Yo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박정아 팀장, 고객지원팀,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ervice Team

김경미 대리, 전략기획팀, kkmimi99@univera.com  
Kyungmi Kim, Assistant Manager, Strategy & Planning Team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최재영 차장, 해외영업팀,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Overseas Sales Team

장미라, 총무인사팀,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HR & General Affairs Team

####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이세현,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Manager

밥 풀턴, 지역사회 봉사 코디네이터  
Barb Fulton, 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

타라 아담스, 인사부 보조  
Tara Adams, HR Assistant

####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김수겸 상무, 알로콥 생산관리,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줄리아, wj20061204@hotmail.com  
Julia, HR Manager, Management

####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허영문 대리,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 네이처텍 /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univera.com

####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salifesciences.com

####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 알로콥 미국(생산) / Aloecorp USA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 알로콥 미국(영업) / Aloecorp USA (Sales)

248 Addie Roy Rd.  
Suite B-103, Austin, Texas 7874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 알로콥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03-A 4<sup>th</sup>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690002  
Tel: 7-4232-42-20-95, Fax : 7-4232-42-13-36





## Cosmetic Actives So Natural Mother Nature Would Be Fooled

Unigen has collected and researched over 8000 medicinal plants from around the world to discover and develop active ingredients that are as unique as they are effective. Tested for both safety and efficacy in human clinical trials, Unigen will help you meet your development timelines. Unigen owns over 150,000 acres of farmland to ensure quality and supply. With 45 scientists and 151 patents awarded or pending, Unigen is the preeminent natural products research company. If you are looking for safe, novel compounds that enhance circulation, whiten the skin, or deliver powerful antioxidant protection, Unigen is your source. For both topical and oral delivery, Unigen is unlocking nature's miracles.

**unigen**®

2260 Willamette Drive NE  
Lacey, WA 98516 USA  
Tel: 360-486-8200  
Fax: 360-413-9135  
[www.unigenusa.com](http://www.unigenusa.com)